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3호 HYUNBULNEWS.COM 2025년 3월 19일(음력 2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올해는 봄부터 가을까지 '선명상 향연' 펼쳐진다

조계종, 4월 1~6일 '2025 국제선명상대회'

서울 강남 봉은사 일원서 진행
4월 1일 개막…프로그램 다채
초급~전문 108가지 명상 소개
5~9월 전국서 선명상대회 추진
진우스님 "선명상으로 행복 전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는 '2025 국제선명상대회'가 4월 1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올해는 4월 3~6일 봉은사 인근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봉은사는 4월 2~6일, 경내를 선명상 체험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사기간 동안 봉은사 미륵광장에서는 선명상음악회(음악명상)를 비롯해 젊은이들의 연애 고민 토크쇼 명상, 진로 고민 토크쇼 명상 등 다채로운 선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봉은사 내 각 전각과 마당에서는 초급자부터 전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7가지 선명상 총 108가지가 운영된다. 캉쎄르 린포체 외 12명의 세계 각국 스님의 명상 지도와 국내 명상 지도스님, 명상과학 지도자, 템플스테이 지도자 및 국내 유명 명상(요가) 지도자와 강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5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은 4월 1일 오후 6시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봉행된다. 개막식에서는 미륵대불을 활용한 '세계평화' 기원 미디어아트가 진행되며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과 국내외 유명 명상가가 함께하는 선명상 음악회도 열린다. 불교의 정신과 전통을 담아 불교 의식도구인 사물(범종·목어·운판·법고), 국악과 서양의 관현악단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 명상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대표 프로그램은 선명상위원장 금강스님이 진두지휘한다. 화두와 서원을 '선명상 목걸이'에 직접 지니며 화두를 통해 지금 내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 늘 깨어있게 하고,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한 서원을 세우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과 평안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선명상축제 이후인 5월부터 9월까지는 인천과 경기, 강원,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제주 등 전국 주요 사찰에서 '지역 국제선명상대회'가 열린다. 10월에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명상과 교육'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여법하게 회향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단순한 수행을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국민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온과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선명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선명상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025 국제선명상대회'가 서울을 세계적인 명상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의 씨앗을 심어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선명상이 보편화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미래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화문에서 진행된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약 3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하루 5분 선명상'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올해는 누구나 쉽게 하루 5분 선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명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 분야에 접목하여 확산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명상의 대중화와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5 국제선명상대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온라인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4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2025 국제선명상축제'의 선명상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02-737-0863



호국불교 정신 계승한 군불자 되겠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3월 8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2025군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훈련병 1700여 명이 참석해 오계를 수지하며 불자로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지계정신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참된 군인이 될 것을 강조했다. 사진은 자광 대종사가 훈련병에게 연비를 하는 모습. 논산=유재상 충청지사장

더프라미스, 불교계 첫 서울형 키즈카페 개관

3월 6일, 답십리1동점 개관식
"어린이 포교의 윤활유" 기대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불교계 단체 처음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탁 운영한다. 이웃종교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키즈카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불교계도 이를 활용한다면 어린이 포교의 윤활유가 될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더프라미스는 3월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개관식'을 개최했다. 더프라미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을 수탁 운영하기 시작했다. 운영기간은 5년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은 연면적 126.5㎡(약 38.3평) 규모다. 미끄럼틀, 시장놀이, 주방놀이 등 유아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프라미스는 강원도 산불 및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 현장에서 어린이 돌봄쉼터를 운영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고,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힘써왔다. 또 안전 지키링 캠페인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도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더프라미스는 3월 6일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개관식'을 개최했다.

더프라미스는 이러한 어린이 돌봄을 경험을 바탕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하며 아동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불교계 단체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활동의 영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2023년, 민간시설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나 불교계의 지원 미비로 선정이 되지 않은 바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계 참여가 두드러지며 속속 성과를 나타내자 불교계에서도 서울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지난해 서울시 키즈카페 위탁운영을 주제로 '2024 제1차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정책의 흐름과 포교 방향을 읽어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때문에 불교계의 더프라미스의 이번 수탁은 단순한 정책 참여를 넘어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프라미스 이사장 묘장 스님은 "아동보호, 아동돌봄은 더프라미스 창립 이래로 지속해온 핵심 활동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형 키즈카페 답십리1동점이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키즈카페이자 부모님들에게는 쉼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답십리1동점 이용대상은 3세~6세(2019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생) 아동과 보호자다. 회차당 이용료는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 놀이돌봄 서비스는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월요일, 공휴일 제외)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간 3회차로 운영한다. 회차당 이용인원은 아동 기준 개인 14명, 단체 20명이며 이용신청은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2BL커뮤니티센터 내 지1층에 위치했다.

임은호 기자

육조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생사해탈을 위한 '3년결사안거' 모집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면
반드시 3년 안에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방각서 : 3년결사안거 중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의와 불만을 절대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 어떠한 벌칙도 감수하겠습니다.



1000명 앞에서 좌탈입망하신
전강 전법 대선사

지금 불교계에 스승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선 대원선사는 현재 90의 연세로, 64년 전인 26살 때부터 120세까지 수명을 정해놓고 사시면서, 간절히 깨닫기를 서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죽비를 잡고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하여 '3년결사안거'를 단행하고자 하십니다.

농선 대원선사의 법사이신 전강선사는 1000여 명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하신 후, 앉은 자리에서 열반에 드셨고, 은사이신 해인사 인곡선사도 나고 죽음을 자재하셨으며, 농선 대원선사님 지도하에 공부한 제자 소진추, 전대각월 불자님도 좌탈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생에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를 따른다면, 누구라도 승속과 종파를 초월해 입방하여 반드시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만 끊어지면 내 부모 처자식은 그만두고 내 몸마저도 한 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나이겠습니까?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지닌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방요건 : 나이 (30~60대 남 · 녀) /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분 / 제출서류 (입방각서, 건강진단서) / 접수기간 2024. 09. 01 ~ 2025. 12. 31 / 문의 010-8670-1445

올 가을, 광화문서 태고영산문화축제 열린다

태고종, 3월 13일 신년기자회견
전통문화 계승 · 대사회 활동 강화
국내 · 외국인 대상 '시민명상센터'
중국불교계와 문화교류도 확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이 신도 1만명이 참여하는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봉행한다.

태고종 총무원장은 3월 13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2025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올 한 해 계획을 밝혔다. 태고종은 올해 '함께 하는 세상,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시대'를 슬로건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대사회 활동을 강화해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7회 태고세미나와 대중(對中) 불교문화교류 확대 △광화문 태고종 영산문화축제 및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 개최 △지역 유무형 문화재 콘텐츠 개발 활성화 △시민명상센터 개설 △사회복지재단설립 운영 등 5대 핵심 주요종책 과제를 추진한다.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

태고종은 10월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025 태고영산 문화축제를 연계한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영산재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고유한 문화형태로 보존 계승돼 온 것으로, 올해 4회를 맞았다. 태고종은 영산문화축제를 통해 한국 미래가 날로 새로워지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마련됐다. 국내외 불자 1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계법회에는 해동율맥 전수자인 수진 율사 스님과 대덕 증명 스님들이 법사로 나선다.

상진 스님은 "전법 의식은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공동체 정신에서 발로된다. 대승보살 수계법회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됐다"고 설명하며 "세계 각국 고승과 불자들이 동참하는 수계법회와 영산재를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선양하고 우리전통 불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좋은 법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대 핵심 주요종책 과제를 발표하고 "국민화합과 안정을 위해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對中) 불교문화교류 확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 교류사업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중국 불교계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한다. 올 상반기 중 불교 교류와 더불어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었던 태고보우 국사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하고 상호 협력하에 사업 추진을 해 나갈 방침이다.

상진 스님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국가 간 국제교류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정신을 배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교 세계화와 세계 불교인들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하는 세상을 이뤄가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활성화

태고종은 2024년 '태고문화유산전승사업단'을 신설해 전통 사찰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는 물론 종단 내 유무형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태고종에서 봉행하는 모든 불교의식 및 문화행사 활동에서 종교의 벽을 뛰어 넘어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 국내외에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념과 세대의 장벽을 허물고 소통과 화합, 마음 치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융합의 시대가 되도록 종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명상센터 개설

바쁜 일상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종교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태고종은 선 수행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을 위한 명상 체험과 수행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현녹지공원과 연계,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4층에 마련될 '태고 시민 명상센터'는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4월 운영 예정인 이곳은 태고종에서 전승·보존해가고 있는 불교의례를 활용해 염불, 소리, 생활 명상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전통문화 체험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태고종은 지자체 명상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과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갈망하고 요구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 종교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태고종 사회복지재단 운영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봉사와 후원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종단 산하 사회복지재단 및 복지법인 등을 통해 다양한 밀착형 사회 공헌 활동을 전대하고 건강한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사회복지법인 한국불교태고종 복지재단의 신규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나가고 종단 안팎의 복지 관련 타 단체들과 연계해 각종 지원사업을 펼쳐나간다. 아울러 종단 산하 국제 NGO를 통한 해외구호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상진 스님은 "올해 슬로건의 큰 주제인 '함께하는 세상'은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국민들이 갈라지고 사회가 대립구도로 가는 등 엄중한 시국을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염원이 담겼다"면서 "계층과 세대 간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미래를 지향하고 국민의 화합과 안정의 기반을 위해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불자회 대의원 총회…천년을 세우다 동참

2025년 사업계획 · 예산안 승인
불사 기금 1000만원 쾌척도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가 3월 12일 제2-1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쓰담순례 등 회원 활동을 비롯해 국제선명상대회와 같은 종단 주요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예산으로 3억 2671만8663원이 승인됐다. 세출분야는 전법, 교육, 종단 외호, 기관 운영 등이다.

2025년 세부사업계획안도 공유됐다. 전국여성불자회는 다양한 사업들로 여성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와 뭇생명을 쓰다듬는 '쓰담순례' 시즌 2는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개발한 순례 프로그램을 활용, 4월부터 4회에 걸쳐 연중 사업으로 진행된다. 한국불교의 맥과 흐름을 알 수 있는 시간으로 △4월 19일 대흥사 초의선사의 동다송 길 △6월 14일 신흥사 해맞이 가는 길 △9월 13일 송광사 법정 스님의 무소유 길 △11월 1일 해인사 소리길 방문이 예정돼 있다.



전국여성불자회가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1000만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푼다리카 아카데미'도 지난해에 이어 열린다. 연 2회 인문학 대중강연을 개최해 우리사회 불자여성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11월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제2회 김장은 축제다'를 개최한다. 김장 계승과 함께 나눔의 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구 및 직능 조직 지원 관리, 천년을 세우다와 아미타요양병원 등 종책 사업 기금 모연, 교계 내외 단체 연대, 좋은 불자되기 캠페인 등이 연중 내내 진행된다.

김의정 회장은 "올해는 종단조직개편을 통한 여러 변화가 있는 만큼, 조계종 여성 불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종단의 종책과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종단외호를 위해 힘쓰자"고 당부했다.

총회에 앞서 전국여성불자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진우 스님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회 임원들을 한 명 한 명을 호명해 인사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불자들을 격려했다. 임은호 기자

"영국사지, 명상센터 건립으로 명소될 것"

오언석 도봉구청장, 진우 스님에 영국사지 복원계획 공유

조계종과 서울 도봉구가 고려시대 사찰이자 서울 유일 서원터인 영국사지(도봉서원)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3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오언석 도봉구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진우 스님에게 영국사지가 갖은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불교와 유교의 화합 상생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방안을 설명했다. 영국사지에는 출토 유물을 보존하는 유물전시관과 서원이 복원되며 명상센터도 함께 건립될 예정이다.

오 구청장은 "교통이 좋고 공기가 청정한 도봉산은 370여 만명이 다녀가는 명산으로 도봉산 초입에 위치한 영국사지에 전시관과 함께 명상센터가 건립되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며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불교와 유교의 상생화합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도봉산에 명상센터가 건립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종교가 달라도 이곳을 찾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며 "전 국민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명상은 마음을 맑게 하고 자기 힘을 기를 수 있는 실천 방법"이라며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 대법회에 이어 올해는 선명산 프로그램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내소사 다례재 및 해안대종사 추모제 안내

능가산 내소사는 633년 혜구두타 선사가 창건한 이후 설파, 백파, 설두 스님의 후예인 완성, 관해, 만허, 해안, 우암 등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면면히 불조의 혜명을 이어 수행정진 해왔습니다.

이에 내소사에서는 역대 조사 스님들의 다례재 및 해안대종사 51주기 추모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이번 다례재를 계기로 문도회를 창립하여 문도화합과 승가의 일원으로 거듭나 정진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불기2569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문도 일동

■ 다례재 및 추모제 봉행일시 : 불기2569년 4월 4일 (음. 3월 7일)

- **다례재** : 오전 10시, 부도전
- **추모제** : 오전 10시 50분, 대웅보전

■ **문도회의** : 4월 3일 오후 5시, 내소사 송풍회우

25돌 맞은 포교사단…“우리는 행복한 포교사”

3월 8일, 동국대 중강당 기념법회
“리플레이 교육사업 정착 최선”
모범 포교사·군포교 활성 팀 시상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이날 행사에는 전국 지역단에서 올라온 포교사 450여 명이 함께해 그간의 활동을 격려했다.

“우리는 행복한 포교사입니다.”

일선에서 포교에 힘쓰고 있는 포교사들이 포교사단 출범 25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결집했다. 이들은 자축과 격려의 시간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포교원력을 새롭게 다졌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3월 8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포교사단 출범 25주년 및 제12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포교사단은 2000년 3월 김기병 초대단장을 필두로 공식 창단했다. 전국 7개 지역단을 설립해 지역 곳곳에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며 포교 활동에 나섰다. 현재 신규단원 538명이 접수해 총 단원 4599명이 13개 지역단과 LA지역단 323개 팀으로 편재돼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교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교사 정체성 고취와 포교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 포교사단장에 따르면 포교사단은 2023년부터 불교문화해설사, 불교의례제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교문화해설사는 금년 진행 중인 7기까지 450명 배출 예정이고, 불교의례는 244명이 수료했다. 종단의 선명상 대중화에 발맞추기 위한 명상상담사 자격증 제도도 도입했다. 현재 명상상담사 모집인원 100명은 선착순 조기 마감됐고, 올해 접수 및 배출인원은 600~800명으로 예측된다. 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소유실천운동본부’를 ‘마음챙김행복개발원’으로 명칭 변경했다. 비영리단체로서 필요한 면모를 갖추고, 포교사단 산하단체임을 분명히 하도록 회칙도 수정했다.

김 포교사단장은 “2025년 남은 기간 불교문화해설사, 명상상담사, 불교의례 이수증 제도 등 포교활동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리플레이교육사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어를 위해 단상에 오른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우리는 행복한 포교사! 부처님법 전합시다!” 등 구호를 외치며 포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선업 스님은 최근 종교인구의 변화를 언급하며 포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범 포교사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대상인 총무원장상은 강수대 부산지역단 포교사와 경북지역단 염불포교 고운팀이 수상했다. 강수대 포교사는 금정총림 포교사회 포교사 고시반 창립을 이끌고 20년간 강의하며 포교사 육성에 기여했다. 부산종립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양성에도 힘썼다. 열불포교 고운팀은 난치병 어린이돕기 108배 정진 행사,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등 활발한 지역 포교 활동으로 불자들의 귀감이 됐다.

이밖에도 포교원장상, 총재상, 단장상 등 개인 60명과 3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군포교 활성화에 헌신한 팀들을 위한 시상도 처음으로 진행됐다. 최전선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온 만큼, 큰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

한편 포교사단은 기념법회에 앞서 불교문화해설사 지도자 해설시연과 2024년 사업결산, 감사보고를 안건으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동국대, 불교동아리 활성·내실화 나선다

전법특임교수 이어 회장 위촉
열린전공학부 새 동아리 창립
신행마일리지 도입, 참여 독려
MZ 콘텐츠 담아 영캠프 개최



행사를 마치고 학교 및 법인 주요 관계자들과 불교동아리 회장단, 지도교수, 지도법사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해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으로 캠퍼스 전법의 새 지평을 열었던 동국대가 동아리 활성·내실화를 통해 교내 전법 열기를 이어간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3월 13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불교동아리 장학증서 수여식 및 지도교수, 전법특임교수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국대는 17개 불교동아리 회장들에게 동국건학장학생 장학증서와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획위원으로 위촉된 동아리 회장들은 연 500만원의 장학금을 받으며 오는 9월 24일 열리는 ‘2025 영캠프’의 행사를 직접 기획·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템플스테이 체험권 1000장을 전달하며,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동국대는 17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를 위촉했으며, 새로 창립될 예정인 열린전공학부 불교동아리 전법특임교수로는 불교대학 불교학부 강사 도업 스님을 위촉했다.

앞서 3월 12일 열린 ‘제29차 건학기 본기관장 연석회의’에서 조상식 다르마칼리지 학장은 “열린전공학부에 새로운 불교동아리 창립이 준비 중이다. 최근 동아리 회장과 부회장의 면접을 봤다”며 “뛰어난 인재들이 불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27일 처음으로 전법특임교수를 임용·위촉한 동국대는 불교동아리 회장단·지도교수를 위촉하며 교내 전법 내실화의 기틀을 다졌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불교동아리 활동 강화를 위해 신행 마일리지인 ‘드림 패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드림 패스 마일리지’는 동아리 가입, 영캠프 참여 등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적립할 시 불교계 장학과 우수 활동 포상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훈인 ‘동국중흥이 불교 중흥’을 강조한 이사장 돈관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도법사와 학생, 지도교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대학생 전법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동국발전이 불교 중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국대학의 건학 정체성을 이어가는 ‘주인공’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불교동아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태고종 금산복지센터 개원

3월 10일, 사회복지사업 본격화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발원



한국불교 태고종이 사회 복지사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회복지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 10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648-2에 금산복지센터 개원식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알렸다.〈사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아래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라며 “복지재단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 종단의 긍지를 만들자”고 태고종 복지재단 역할을 강조했다.

사회복지위원장 성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금산복지센터는 태고종이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첫 번째로 개원하는 센터로 그 의미가 크다”며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가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종단의 뜻을 반영한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00만원을 쾌척했다.

한편, 금산복지센터는 총무원 사회복지부 혜담 스님이 센터장 소임을 맡아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봉녕사 승가대 입학…“위없는 도 성취하길”

승가대학 8명·대학원 8명 총 16명
출가학교 거쳐 입학 결심도 ‘눈길’



한국불교 비구니 교육과 계율 수행 중심지인 봉녕사에서 수행의 길을 이어갈 새로운 학인스님들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3월 6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2025년 봉녕사승가대학 및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입학식’을 거행했다.〈사진〉

올해 봉녕사에는 승가대학에 8명, 금강율학승가대학원에 8명(전문과정 6명, 연구과정 2명) 등 총 16명의 학인스님이 입학했다. 특히 올해 입학생 가운데는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1기 졸업생 여초 스님과 월정사 출가학교 57기 졸업생 법인 스님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환영사에서 “여러분은 궁극적인 행복을 성취하고자 출가했을 것”이라며 “봉녕사의 청정하고 넓은 품속에서 모든 애착과 의심의 그물을 끊고 위없는 도를 성취하는 봉녕인이 되길 발원한다”고 축하했다.

무엇보다 이번 입학식에는 출가학교를 거쳐 출가의 길을 선택한 학인스님들이 있어 출가학교의 의미 있는 결실을 보여줬다.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1회 졸업생 여초 스님은 출가학교에서 만난 스님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모습에 출가 결심에 싹을 틔웠다. 여초 스님은 “대중 속에서 화합하고 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를 어루만지며, 물러남 없는 정진으로 부처님 법을 알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월정사 출가학교 57기 졸업생 법인 스님도 출가학교에서 한달 동안 108배, 삼보일배, 참선 다양한 승가생활을 경험하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고자 출가를 결심했다. 법인 스님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부처님 법을 만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불교에 귀의하도록 이끌어주고 싶다”고 전했다.

김내영 기자

불성의 자리에서 수계 공동체를 이루는
보살계산림
菩 薩 戒 山 林
4. 2 (수) / 4. 4 (금)



기간 : 2025년 4월 2일(수) ~ 4일(금)
동참금 : 5만원
접수처 : 화엄전_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차량안내 : 부산 온천장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오전 8시 ~ 9시
불지종가·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명상지도자협 "명상지도자 양성 박차"

명상아카데미 1·2급 4월 16일 개강
5월 18일, 창립 10주년 기념 포럼도
적경 스님 "정신 건강 향상 최선"
진우 스님 예방서 "선명상 대중화"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간담회에 앞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명상지도자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온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명상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올해 새 이사장으로 취임한 적경 스님을 중심으로 명상아카데미, 기념 포럼 등을 열어 불교 명상의 대중화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적경 스님, 협회)는 3월 11일 서울 나무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일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4월 16일부터 '명상아카데미 명상지도자 2급·1급 자격과정 강의'를 실시한다. '지혜와 평화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강의는 총 11강으로 구성됐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아카데미를 통해 현재까지 명상전문지도사 약 2200명을 교육했고, 지도자 자격과정 2급 866명, 1급 426명, 트레이너 178명, 디렉터 34명을 배출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최일선에서 불교명상을 개발·보급하는 대표 명상지도자들이 강사진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적경 스님의 '가피명상'을 비롯해 △문사수명상연구원장 일중 스님의 '호흡통찰명상'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의 '아바타명상'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고담선원장 혜민 스님과 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 정혜 스님이 새롭게 강사로 참여해 '바로 깨닫는 직지심법'과 '화엄선명상'을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5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는 '나와 세상의 갈등을 치유하는 명상의 지혜'를 주제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도 열린다.

협회는 명상프로그램 개발·운영은 물론 염불, 간화선, 위빠사나 등 다양한 명상법을 담은 통합 교재 발간도 연내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2월 17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이사장 적경 스님(봉인사 주지)은 "2015년부터 협회를 이끌어오던 혜거 스님의 원적으로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 혜거 스님께서는 늘 '항상일로'와 '세계일화'를 강조하셨다"며 "자신의 성장과 세상 사람을 위해 공헌하라는 혜거 스님의 뜻을 이어 명상을 통해 국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선명상' 활성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종단은 제도적, 행정적 측면에서 도울테니, 협회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선명상을 제대로 알려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 첫 불교명상지도사 2급 33명 배출

3월 12일, 1기 수료식 개최
20주간 명상 지도 능력 익혀

태고종이 불교명상을 통해 국민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전할 지도사 33명을 배출했다. 지난해 불교명상지도사 민간자격증발급과정을 등록·운영한 이후 거둔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태고종은 3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불교명상지도사 2급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33명의 지도사를 배출했다. 불교명상지도사 2급 교육은 지난해 6월 14일 시작돼 20주간 명상 기법을 배우고 실습하며 지도 능력을 익히는 과정으로 운영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수료생 대표 지성 스님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또 모범 교육생으로 선정된 지성 스님, 능관 스님, 진원 스님, 수정 전법사에게는 표창장과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직후 전국 종무원을 돌며 종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명상' 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아 교육 과정을 개설했는데,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 아쉬운 마음도 있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정을 잘 이수한 여러분의 열의가 태고종의 밑거름이 되고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주인의식을 갖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불교명상을 널리 알린다면, 종단도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료증과 표창장을 받은 지성 스님은 배움의 의미를 되새기며 수행의지를 다졌다. 지성 스님은 "이제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일이 남았다. 익힌 지식을 잘 나누며, 명상을 접하는 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상진 스님은 모범 교육생으로 선정된 스님과 전법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불교 정신으로 자비 의술 펼치겠습니다"

이해원 동국대 의료원장
백용해 일산병원장 취임식



새로 취임한 이해원 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백용해 일산불교병원장이 불교 정신을 기반한 자비 의술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 의료원은 3월 11일 일산불교병원 대강당에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일산불교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정영식 기획부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등과 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해원 동국대 의무부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 정신에 기반한 의료를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해원 의무부총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치유와 자비의 정신을 전하고, 환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전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의료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백용해 일산불교병원장은 입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의료를 펼칠 것을 밝혔다. 백용해 병원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입원 경로를 단순화하고 배후 진료가 가능한 입원 전담 병동을 설치하고 입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구축하겠다"며 "병원 구성원 모두가 병원 발전을 통해 동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대 의료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지속적 관심과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화계불교대학 입학식…"정법 배우리"

학장 청강 스님 등 강사진 포진
우봉 스님 "행복 위해 공부" 당부



"화계불교대학에 입학하는 저희 입학생 일동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굳게 지니고 부처님 정법을 배우고 익힘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제32기 화계불교대학, 제18기 대학원 및 제14기 경전반 입학식에 모인 입학생들이 부처님 제자로 오계를 지키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 화계사(주지 우봉 스님)는 3월 8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불교대학 입학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날 주지 우봉 스님은 입학생들을 격려하며 수행과 정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개인과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를 담은 종교이자 철학, 학문"이라면서 "행복 성취를 위해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고 당부했다.

학장 청강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삶과 지혜의 영양분이 될 수 있게 함은 물론 어려운 사회와 국가의 밝은 등불이 돼 주길 바란다"면서 실천하는 부처님 제자가 되길 서원했다.

올해 화계사는 최고의 강사진으로 화계불교대학 수업을 꾸렸다.

불교대학 학장 청강 스님은 기본반과 선명상, 여래장(2학년)을 가르친다. 포교국장 무념 스님은 수행·실천(1학년)을 강의한다. 사회국장 재각 스님은 불교개론(1학년), 금강경·교양과정(대학원)을, 무여 스님은 부처님의 생애(1학년)는 강의한다. 1학년 경전 입문은 일윤 스님이, 불교사상사는 진석 스님이, 지장경은 서안 스님이 강사로 나선다. 고금 스님은 대학원에서 법화경을, 현주 스님은 경전반에서 법구경을, 혜장 스님은 경전반 화엄경과 1학년 불교문화를 강의한다. 임은호 기자

진흥원, 대원청년불자상·동아리상 수여

3월 12일 증서 수여식
총 3억 6900만원 전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원청년불자상·동아리상' 제10기 수상자를 선정하고 총 158건, 3억 69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진흥원은 3월 12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임원실에서 '제10기 대원청년불자상·동아리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제10기 청년불자상·동아리상은 지난 1월 공고를 낸 이후 접수된 대학생, 대학원생과 초등·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불교 동아리 지원자를 심사를 거쳐 불자상 54명, 동아리상 104곳을 최종 선정했다.

진흥원은 "이번 10기에는 학생과 동아리 지원자 수가 폭증해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청년불교 활동에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본원은 학교마다 다수의 동아리가 개설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사)대한불교선재종
창종 10주년 기념 및
총무원장 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무량겁을 두루 밝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사)대한불교선재종은 법등을 이어받아 수행과 교화를 실천하며, 모든 중생과 더불어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창종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대한불교선재종을 위해 원력과 공덕을 쌓아오신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께서 자리를 빛내주시어 더욱 원만구족한 법회가 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날 지나온 1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원력과 정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시어 무량한 법열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69년(2025년) 3월 2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3층(총본산 광주 미륵사)
- 대상 : 선재종 스님 및 사암 종사자

(사)대한불교선재종 총무원장 혜법 합장

봉 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847주년 기념
제20회 추모 다례재

귀의 삼보하옵고

사단법인 진각국사선양회에서는 불향인 전남 화순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진각국사 혜심 탄신 847주년을 맞아 제20회 다례재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화순문화원에서 봉행되는 다례재는 진각국사 혜심의 큰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화순군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봉행되는 이번 행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4월 10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화순문화원
■ 주최 : (사)진각국사 선양회
■ 후원 : 화순군 Hwasun-gun 화순군의회 Hwasun-gun Council
■ 협찬 : 화순 문화원, 화순 초등학교 제37회 동문회, 화순읍 유천리 벽오동 보리밥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1길 16 혜심사 H·P 010-2971-4646

특별법안 '초헌법적'…'가톨릭' 국교화 할 셈인가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가톨릭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면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행사 관련 특별법안을 제정까지 하며 지원에 나서자 불교계는 이를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이 본지에 가톨릭의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고 종단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가톨릭이 준비 중인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자유와 평등사상이 태동하고 근대가 열리면서 이전까지 정교일치 체제가 보편적이었던 인류의 정치사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및 비종교성을 의미하는 정교분리의 국가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정교분리 국가체제는 정교일치 체제 하에서 발생해온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성찰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거의 모든 면이 다원화되고 있던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고자 한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정교분리의 체제 하에서 국가는 국민의 세속·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뿐, 국민의 신앙·내면적 생활에 대해서는 국민 각자의 자율에 맡겨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 고수는 각기 다른 종교에 대해 평등성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즉 특정 종교에 대해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가가 종교에 대해 중립성을 지켜야함과 마찬가지로 종교 또한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종교의 자유를 넘어 사회의 질서와 안녕 유지, 그리고 종교 간 평화적 관계를 지지하려는 의도가 정교분리의 이념에 담겨 있다. 우리나라 또한 헌법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27년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가톨릭)의 종교 행사다. 종교성을 배제한 비종교적 일반 청년대회가 아니다. 이러한 행사를 위해 천주교 신자인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2건의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2024년 11월 7일 김병기 의원 등이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5356)'을 발의했다. 같은 달 19일 성일종 의원 등은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5695)'를 발의했다. 두 법안이 대동소이하다. 이 두 법안은 우리의 헌법정신은 물론 현대 민주공화국의 종교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다종교 사회이면서 동시에 비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보편적 국민정서에 현저하게 반하는 법안이다. 대동소이한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발의한 데는 분명코 저의가 있을 것이다.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2조 정의 그리고 제25조(청년단체 활동 지원)까지 동일한 구조이다.

단지 성일종 의원의 안은 제26조(후속사업)가 추가돼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청년대회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및 국제친선 활동을 위하여 제2조 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사업의 장기 연장을 보장하고 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명백한 가톨릭 주최 종교행사
현 국무위원 등 지원위 참여
정부 중앙조직을 행사기구화

2037년까지 가톨릭 지원 명시
전국 곳곳 가톨릭 성지화 우려
'전법도생' 종지 구현 '적신호'
조계종 등 범불교적 대응 나서야

김병기 의원 발의안은 법의 유효기간에 대해 "이 법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성일종 의원의 안은 "이 법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6조는 203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향후 10년간 보장을 못 박고 있다.

두 법안의 내용을 살필 때 우리 헌법의 정신 및 추구하는 방향성과 배치된다. 두 법안 공히 제18조(정부지원위원회)의 제2항에서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현직 국무총리와 내각이라는 정부 중앙조직을 종교행사의 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간혹 종교계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전(前) 국무위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현직의 총리와 국무위원을 위원회의 장으로 삼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현직 총리를 특정 종교행사의 위원장으로 하려면 각 종교계는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 제18조와 더불어서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가 등의 지원)' 등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 및 예산, 인력 등을 이 대회를 위해 편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분히 초국가적이고 초헌법적인 법안이다.

이 사태에 대해 조계종에서는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와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가 법안의 폐기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필자의 경험과 법안의 발의 내용의 강도 등으로 볼 때 쉽게 법안의 폐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국가적 차원의 법적 근거, 정부 인력, 예산과 기획 등 행사 전반에 대한 혜택(Benefit)을 받은 천주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른 종교에 비해 월등한 사회적 역량을 확보하고 그에 비례해서 포교에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 법안 제1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에 천주교 본당 1790개소, 공소 538개소, 성지 사적지 180개소, 교육기관 344개소는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성지와 인프라의 개발, 체험관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남한산성 순례길, 해미읍성, 주어사지는 물론, 전국의 천주교 성지와 사적지 외 신규로 발굴하거나 기존 시설의 증개축 및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천주교는 국가예산을 빌어서 현대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 결국 포교 역량의 강화와 직결된다. 최종적으로 이 두 법안이 합쳐져서 입법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그 피해의 중심은 불교계이며 조계종이고 비종교인이다.

혹자는 불교계도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왜 다른 종교에 대해 왈가왈부하느냐 한다. 불교계 등은 공히 관련한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예산을 배정 받는다. 우리나라는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문화재의 상당부분이 불교 문화유산이기에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 세계청년대회와 같이 일시적 행사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 내각이 위원회가 되어서 국가의 인적, 물적 및 행정적 자산을 쏟아 붓는 경우는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대통령)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자청해서 헌법정신의 파괴 및 국헌문란을 선도하는 격이며,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함이다. 특정 종교(천주교)를 사실상 국교화 하는 행태이며, 종교 간 갈등 유발하고 국민 간 고립과 반목을 자초함과 같다.

국가 자산과 인력(공무원)을 특정 종교를 위해 낭비하며 일시적 행사를 기화로 특정 종교의 동·부동산 등 자산을 문화재 또는 그에 버금가는 위치로 격상시키는 행위가 분명하다. 불교 등 여타 종교를 배척하는 형국이고, 국민과 청년에게 천주교 행사를 국가 행사로 호도하게 한다. 국토 곳곳이 일시에 천주교 성지화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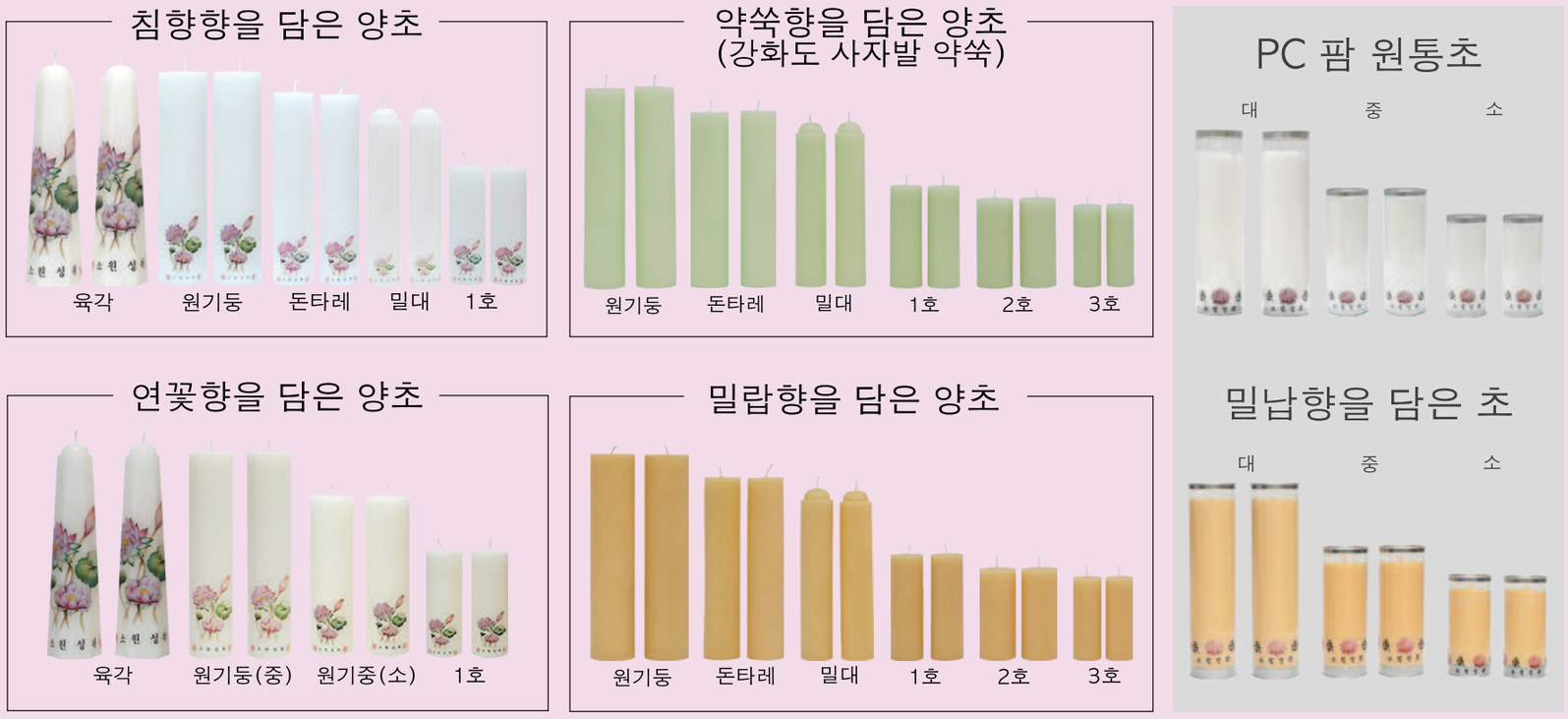
조계종 등 종교계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법안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천주교의 압도적인 위세에 비해 불교 등 다른 종교계의 사회적 역량은 급락할 것이다. 불교계는 헌법 수호와 국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라도 전력 대응해야 한다.

조계종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이다. 국가로부터 '전법도생'에 현저한 장애를 당하는 상황이다. 종단은 명운을 걸고서 대처해야 한다. 2025년에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법난이 시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입법 기능에 의해 불교가 정치 및 사회적으로 억압 받고 사실상 탄압을 당하는 현장이 대한민국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통도사 불교대학, '교육 포교' 지평 열다

3월 8일 설법전서 입학식 개최
불교대학 입학 인원 매년 증가
올해 1242명 최대 인원 입학
현덕 스님 "배운 불교 실천해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2025년 통도사 불교대학'에 1242명이 입학하면서 역대 최다 입학 인원을 기록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 불교대학이 해마다 도약을 이루며, 2025학년도에도 역대 최다 입학 인원을 기록했다. 신도교육을 통한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통도사는 3월 8일 경내 설법전에서 '2025년 통도사 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 주지스님 환영 인사, 축가, 내빈 및 강사스님 소개, 입학 및 수강 현황 보고,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현덕 스님과 강사스님 및 입학생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통도사 불교대학 입학생은 1242명(1학년 321명, 2학년 267명, 대학원 과정 654명)으로, 2023년 1004명, 2024년 1128명에 이어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다. 이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관심과 지원, 주지 현덕 스님의 지도 아래, 강사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 그리고 포교국의 체계적인 운영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보인다.

이날 입학생들은 구하정 불교대학 2학년 불자가 대표로 낭독하는 발원문에 맞춰 수행 정진의 서원을 세웠다. 입학생들은 "이 자리에 모인 저희는 더없이 크고 밝은 뜻을 간직한 불제자로서, 기쁨과 희망의 마음을 담아 제불보살전에 발원한다"며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삶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저마다의 가슴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무생법인의 부처님 세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비록 일상과 직장 속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며 "불교는 머리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함께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며 듣고, 사유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 불교대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사중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습 환경 개선이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강의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강의, 온라인 강의 자료 공유, QR코드 출석 체크 시스템 도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학습 환경을 구축했다. 또 통도사 불교대학에서는 졸업 후에도 불자들이 다양한 신행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강사진 구성도 뛰어나다. 불교대학의 커리큘럼은 초기불교, 대승불교, 불교철학, 수행법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균형 있게 배치해 학습자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포교국장 신경 스님은 "통도사 불교대학의 성장에는 강사스님들의 연구와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교대학은 수행과 신행이 함께하는 곳으로, 강사스님들께서 꾸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불교대학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현진 스님 "선시, 수행자가 남긴 긍정의 노래"

〈禪詩〉

조계종부산연합회 승려연수교육 '선시' 강의 개강

3월 11일 안국선원 교육관서
"깨달음은 깊은 법향 남겨"



"선시는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선사 스님들이 한 편의 선시를 남긴 것은 수행과 깨달음이 응집된 하나의 게송입니다. 이는 자신을 긍정하고, 그 확신을 노래한 것입니다."

3월 11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열린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 승려연수교육에서 동화사 율주 현진 스님〈사진〉이 선시(禪詩)의 본질을 설명했다.

현진 스님은 "오도송(悟道頌)이나 깨달음 이후 읊은 게송들은 한마디로 '대긍정'"이라며 "깨달음의 순간 선사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긍정을 했고, 그것을 게송으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오도송'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려 하지만, 이를 긍정의 노래라고 보면 훨씬 가깝게 다가올 수 있다"며 "선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긍정하며 살아가는지, 긍정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진 스님은 경봉 스님의 선시 '초목삼동개입정(草木三冬皆入定)하니 동한빙설연정시(凍寒氷雪鍊精時)라. 다경풍우험과사(多經風雨險過事)는 지대개화향발시(只待開花香發時)로다'를 소개했다.

스님은 "수행자는 겨울의 고난을 견뎌내고 봄에 꽃을 피우는 초목과 같다"며 "산천의 초목들도 삼동(三冬)의 추운 겨울이 되면 모두 선정에 들 듯이, 수행자도 혹독한 겨울 수행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축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어붙은 차가운 겨울을 견디는 동안, 수행자는 내면을 단련하고 정진하며, 마치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목처럼 버티어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행자는 수많은 풍파와 험난한 과정을 거치지만(多經風雨險過事),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 자만이 마침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퍼뜨릴 수 있다(只待開花香發時)"며 "겨울 동안의 고난을 이겨내고 피워낸 꽃은 향기가 짙듯이, 수행자가 정진을 통해 이룬 깨달음 역시 깊고 향기로운 법향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과 긍정을 얻을 수 있다"며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듯이 수행자는 깨달음의 순간 긍정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는 자연의 이치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3월 11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승려연수교육 '선시'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번 교육은 4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5회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에게는 연수교육 인증점수 30점이 부여된다. 이번 과정에는 조계종 스님 40명이 접수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聯, 제4기 선재동자전승단 출범

1년간 전통문화 계승·홍보 앞장



부산불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연등회와 팔관회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제4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이 공식 출범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3월 9일 천태종 삼광사 문화실에서 '2025년 제4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 발대식'을 봉행했다.〈사진〉 천태종 삼광사 어린이회로 구성된 이번 전승단은 불기 2569년 부산연등회와 팔관회 등 주요 불교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다.

덕중 스님은 발대식에서 "선재동자는 관세음보살에게 가르침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며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주변을 밝히는 선재동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4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1년 동안 다양한 전승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3월에는 전통등 만들기, 4월 18일 부산연등문화제 개막식에서 호기놀이 재현, 4월 26일 부산연등행렬 참여 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힘쓴다. 또 10월 팔관회 선재동자 수계법회 등 호국 관련 체험 프로그램에도 동참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행복선원, 노인복지센터 건립 발원 기도

3월 9일, 500일 맞아 기념법회
정여 대종사 초청 특별 법문도



부산 북구 행복선원(주지 윤광 스님)이 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발원하며 '금강경' 1000일 기도를 정진하는 가운데, 500일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가 법문을 펼치는 특별법석도 마련됐다.

행복선원은 3월 9일 경내 법당에서 '금강경 1000일 기도 500일차 회향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정여 대종사는 법문에서 "물질적 풍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돈이 없으면 괴롭고, 있으면 또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에 고통받는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윤광 스님은 "행복선원이 전법을 실천한 지 올해 10년을 맞았다"며 "이 뜻깊은 해에 '금강경' 1000일 기도 500일차 법회를 봉행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WISE캠 정각원장에 법천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가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장에 법천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법천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주요 소임으로는 용인 백련사 주지, 부산 반야선원 주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법사 등을 역임했다.

법천 스님은 "동국대 WISE캠퍼스가 불법(佛法)의 정신으로 대학교육의 이상을 구현하길 기원하며, 정각원을 보합대화(保合大和)의 장으로 이끌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법천 스님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월정사 만월봉사단 출범…시민보살행 구현

3월 12일 대법륜전서 출범식
지역 중장년 40여 명 뜻 모아
매월 소외계층 위한 봉사 진행
정념스님 "구세대비 원력 실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월정사는 3월 12일 경내 대법륜전에서 만월봉사단 출범식을 봉행했다.

명상치유문화의 성지 오대산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가 시민보살행을 구현하기 위한 봉사단을 출범했다.

월정사는 3월 12일 경내 대법륜전에서 평창군 지역의 공익활동을 위한 만월봉사단 출범식을 봉행했다.

만월봉사단은 진부면, 봉평면, 대관령면 등 평창군에 거주는 40~50대 중장년층 40여 명이 뜻을 모아 구성됐다. 회원들은 지역 기관 및 단체에서 수 년 이상 봉사를 꾸준히 해온 베테랑들이다. 초대 만월봉사단장에는 박재민 월정사 대외협력 특보가 부회장에는 박효신 월정사 연꽃합창단장이 맡았다.

만월봉사단 출범은 월정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화엄선 시민보살행'의 기치에 맞닿는다. '화엄선'은 모든 것이 나와 연결돼 있음을 아는 인식 전환을 통해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님을 알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갖는 긍정의 패러다임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체 만물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시민보살행'이다.

실제 월정사는 '화엄선 시민보살행' 실천을 위해서 평창군 백미 5t 지원·장평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성금기탁·평창군 장학금 기탁 등 각종 지원사업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코리아 미래포럼 개최, 청춘별빛명상 템플스테이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구세대비 원력의 실천을 강조했다. 퇴우 정념 스님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은 구세대비에 있다. 혼자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봉사하면 더 큰 일도 가치 있게 할 수 있다"며 "봉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복을 짓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이 세상이 곧 '복전(福田)'"임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우선으로 한 만월봉사단 출범을 뜻깊게 생각하며 천개의 손길로 세상을 보듬어 구세대비 원력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퇴우 정념 스님은 만월봉사단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스님은 "만월봉사단이 우리 지역 최고의 봉사단체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월정사도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따뜻하고 넉넉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 만월봉사단의 다양하고 선도적인 봉사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만월봉사단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월정사의 수행가풍에 따라 지역 공동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보살행' 실천을 다짐했다.

봉사단원들은 "세계는 나와 너, 몸과 마음, 이기심과 이타심, 자연과 문명으로 분별되어 있지 않으며 상대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로 연기되어 있음을 성찰하고 '나를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한' 시민보살의 본분사임을 자각한 화엄행자로서 보현행원을 서원한다"면서 "우리 봉사단원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수행에 정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소중한 인연을 나누고 '생명평화'를 위해 신도회와 이웃종교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미래세대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서원했다.

향후 만월봉사단은 매월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외계층 반찬나눔 △공공기관(물품나누기) 자원봉사 △이·미용 봉사 △긴급재난구호 등을 평창군과 진부면과 긴밀히 협력·수행할 계획이다.

정읍 보림사, 재가불자 명상강좌 개설

입보리행론 교재…매주 목·일 강의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가 재가불자들의 수행실천을 돕기 위한 명상 강좌를 개설했다.〈사진〉

이번 강좌는 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입보리행론'을 기본 교재로 활용해 진행되며, 불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명상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월 9일 첫 강의를 시작한 보림사 명상강좌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열린다. 명상강좌에는 30여 명의 일반인들과 불자들이 수강신청했다.

보림사는 목요일 강좌는 정읍 지역의 재가불자들이 참가하고 일요일 강좌는 직장인들과 전주, 광주 등 멀리서 오는 수강생들을 위해 마련됐다. 수강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은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면의 지혜를 키우는 과정"이라며 "이번 강좌를 통해 불자들이 명상의 가치를 체험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담 진성 대선사 열반 17주기 다례재

수덕사 3월 10일 봉행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3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원담당 진성 대선사 열반 17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추모법문을 통해 "오늘 원담 대종사의 열반을 맞아 대종사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불교의 정체성, 선사들의 정체성과 사상과 정신을 되새기자"며 "우리의 정체성은 해탈법"이라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백양사 고불매 담긴 禪香 느껴보세요

'고불매 禪·梅·香' 축제, 3월 29~30일 개최

선명상 사찰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돼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백양사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고불매(古佛梅· 사진)를 배경으로 한 '2025 백양사 고불매 선·매·향(禪·梅·香)' 축제를 오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당초 3월 22~23일로 예정됐으나, 기상 이상으로 인해 고불매의 개화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주 연기됐다. 백양사 측은 "방문객들이 만개한 고불매의 정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양사가 주최하고 장성군청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백양사의 상징인 고불매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선(禪) 명상이 결합된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이 이끄는 선(禪) 명상 수행을 비롯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셰프의 식탁'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체험이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백양사 탐방 스탬프 투어, 백양사 설립 설화 체험, 전통차 시음, 힐링 음악과 함께하는 선명상, 사진 및 영상 전시회, 셀카 공모전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고불매는 오랜 세월 백양사의 정신을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번 축제가 자연과 선(禪)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와 관련한 정보는 백양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인터뷰 – 김해 불인사 **송산** 스님

"청소년 명상으로 지역 전법 선도"

하트스마일명상 등 보급
대중화된 불교수행 강조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 스님)가 청소년 포교와 명상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실천하는데 나섰다. 김해 불인사는 4월 6일 '만남, 화합,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 명상을 통한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지 송산 스님〈사진〉은 토크 콘서트에 앞서 불교 수행의 본질이 마음공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표현 방식과 소통 방식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수행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공포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인사는 2023년 김해파라미타 청소년협회를 출범해 청소년들에게 불교적 가치와 인성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행 대중화를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 초대석'을 운영하며, 불자 연예인을 초청해 힐링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배우 강부자 씨가 '나의 인생, 나의 부처님'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많은 불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현대인들에게 보다 쉬운 불교 수행을 전하기 위해 '하트 스마일 명상'을 도입해 내면을 돌아보는 수행법을 전파 중이다.

송산 스님은 "'하트 스마일 명상'을 통해 스스로에게 미소를 짓고 마음을 맑게 가꾸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쌍계사 중창주 고산 대선사 4주기 다례재

3월 10일 경내 일원서 봉행



하동 쌍계사(주지 지현스님)는 3월 10일 영모전, 부도전, 팔영루에서 중창주 고산대선사 열반 4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고산문도 문장 겸 회주 영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도량 정비 계획을 밝혔다. 영담 스님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주문과 방장실 정비 작업도 추진될 예정"이라며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문도를 위한 안정적인 수행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신도회 윤건우 신도회장 취임식

3월 7일 울산시티컨벤션서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가 제28대 윤건우 회장 취임식을 3월 7일 울산시티컨벤션 1층에서 진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혜자 스님 등 지역스님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진용 BBS울산불교방송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안 마이산 탑사 '자비의 쌀' 전달



마이산 탑사(회주 진성 스님)와 (사)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3월 11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요섭)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비의 쌀' 1000kg(10kg, 100포대)을 전달했다.〈사진〉

이번에 전달된 쌀은 신도들이 부처님께 올린 공양미를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진안군 11개 읍면의 소외계층 100가구에 전달됐다.

진성 스님은 "자비의 쌀은 정초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이 부처님전에 공양 올린 쌀"이라며 "공양미를 이웃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산포교당 정법사 영축불교대학 입학식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3월 8일 만불보전 2층에서 영축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주지 광우 스님은 치사에서 "불교를 배우게 된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삶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231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며, 과정별 접수 현황은 △교양 과정 56명(주간 31명, 야간 25명) △전공 과정 47명(주간 24명, 야간 23명) △경전 과정 128명(주간 55명, 야간 30명, 금요일반 43명)으로 집계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찰하는 신행생활을" 전북불교대학 입학식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3월 9일 큰법당에서 불교학과 제38기, 법사과 제33기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입학식에서는 불교학과 65명, 법사과 17명 등 총 82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학인의 길을 걷게 됐다.

이창구 학장은 입학사를 통해 "우리 대학은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문학적 지혜가 결합된 살아있는 불교를 추구한다"며 "왜 불교를 믿으며,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끊임없이 되묻고 성찰하는 신행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무등산 원효사 공양미 북구청 기탁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청 스님)는 사단법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소운 스님)를 통해 3월 10일 광주 북구청(청장 문인)에 자비의 쌀 2000kg(약 572만원 상당)을 전달했다.〈사진〉

이 쌀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전해질 예정이다.

해청 스님은 "매년 신도들이 부처님께 올린 공양미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있다"며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도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 도광사 정초 방생법회



천안 도광사(주지 탄문 스님)는 3월 9일 강원도 양양의 휴휴암 경내 바다법당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낙산사 성지순례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법회 및 순례에는 100여 불자들이 참석해 불살생이라는 소극적인 계율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생명을 직접 구제하는 적극적 보살행을 다짐했다.

주지 탄문 스님은 "방생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이라며 "오늘 방생법회와 성지순례를 통해 수행의 원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인도 마하보디 사원 운영권을 불교도에게”

독립적 운영 권리 인정 성토
시스템 변화 요구 단식 시위
“19세기 법률 다탕성 없어”
인도 정부, 무반응으로 일관

박영빈 객원기자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불교계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시위대.
사진출처=파임 아시아 뉴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온전히 불교도들에게 넘길 것을 촉구하는 단식시위가 부다가야에서 일어났다. 시위를 이끄는 라다크 출신의 상가세나 스님은 “불교도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를 불교도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인도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시위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인도와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인도의 ‘파임 아시아 뉴스’는 더욱 늘어나는 시위대의 모습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인도 비하르주에 부다가야에 소재한 마하보디 사원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장소로 기원전 3세기에 아소카 대왕이 정비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사원 내부에는 아소카 대왕이 세운 금강좌와 돌난간 등이 남아있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수백 명의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함께 마하보디 사원의 현 관리 시스템을 바꿀 것을 요구하며 단식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대는 현 시스템이 마하보디 사원의 진정한 주인인 전 세계 불교 공동체를 사실상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시스템은 1949년 제정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보드가야 사원 관리 위원회(BTMC)가 사원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중 과반수인 5명은 힌두교도에게 자리가 주어지며, 특히 위원장은 힌두교도로 비하르주 지방 행정관이 맡게 된다.

마하보디 국제 명상센터의 지도자이자 시위대를 이끄는 상가세나 스님은 “인도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남아있는 불교사원과 유적을 보존하는 관리자로 지역 힌두교도가 임명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인도에서 불교도가 극소수였던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행정 시스템이며 오늘날에는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949년 마하보디 사원 관리법을 둘러싼 논쟁은 제정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 중인 중요한 문제”라며 “이미 한차례 힌두교도와 불교도가 동등하게 위원직을 맡기로 한 개정안이 나온 바 있으나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위에 대하여 인도 내 단체들을 포함해 500여 개의 단체들이 지지를 선언했다. 또한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온 지지자들은 이 단식에 합류하기 위해 보드가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라다크에서 온 스님들과 재가자 1000여 명이 시위에 합류했다.

시위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성명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가세나 스님과 시위대는 “인도에서 힌두교를 위한 람 만디르와 무슬림을 위한 자마 마스지드와 같은 인도의 다른 역사적인 종교적 예배장소가 일반적으로 해당 종교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마하보디 사원에 대한 불교의 독점적 통제에 대한 요구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며 시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베트남 스님, 인도 향한 도보 만행 순례

두타 수행과 전법 실천 순례
미얀마 내전으로 경로 변경


도보 만행 중인 틱 민 투에 스님과 순례단.
사진출처=BBC 베트남

지난 3월 6일 홍콩의 가톨릭아시아뉴스연합은 베트남 스님의 도보 만행 소식을 전했다. 베트남의 틱 민 투에(Thích Minh Tuệ) 스님은 13가지 두타 수행과 전법을 실천하면서 인도까지 도보 순례를 하고 있다.

2023년 11월 18일 베트남에서 시작한 도보 만행는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다. 미얀마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내전으로 인한 태국과 미얀마 국경 폐쇄 및 태국 체류 문제로 2700km를 우회하여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새로운 경로를 선택했다.

함께 순례 중인 푹 지악 스님은 “태국에서 비자가 곧 만료될 예정이었기에 미얀마로 가려고 했으나, 내전으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졌다”면서 “라오스로 돌아가 태국 비자를 새로 받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태국 재입국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결국 말레이시아로 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나 스리랑카로 가는 배편을 찾을 계획이며, 여의찮으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순례단은 하루 20km씩 맨발로 걷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시주를 받기 위해 발우를 들고 다닌다. 틱 민 투에 스님은 지난해 베트남에서 맨발로 순례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맨발의 스님’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명해졌다.

틱 민 투에 스님은 엄격한 수행 생활을 유지하며 불교의 13가지 두타행을 실천하고 있다. 그의 소박한 삶과 두타행으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그를 공식적인 스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환속한 일반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국영 매체들은 틱 민 투에 스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국영 하노이 방송(Hanoi TV)은 지난 2월 22일 도보 순례 중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순례가 ‘집단 내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분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캄보디아, 종교 화합 위한 불교-이슬람 정상회담

무슬림 세계 연맹 주최로 회담
2월 27일, 30개국 180명 모여


프놈펜에서 열린 불교-이슬람 정상회담.
사진출처=부디스트 글로벌 도어

국교를 불교로 삼고 있는 캄보디아가 종교 간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불교-이슬람 정상회담에 나서 화제다. 3월 6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부디스트 글로벌 도어’는 지난 2월 27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무슬림 세계연맹이 주최한 이번 회담은 캄보디아 최초의 무슬림 연맹 주최행사로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80여 명의 대표가 모였다.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넷은 정상회담의 개최사에서 “캄보디아 내의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연대와 종교적 조화”를 강조했다. 또한 “이 행사는 국가가 종교 간 대화와 공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음을 상징한다”고 첨언했다.

캄보디아 국민 약1750만명 중 약 93%가 불교도이다. 이슬람은 두 번째로 큰 종교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캄보디아 이슬람교단을 감독하는 무슬림 세계연맹 최고위원회 위원인 오스만 하산 수석 장관은 이 정상회담을 캄보디아의 종교적 발전의 이정표로 표현했다. 하산 장관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 캄보디아는 인종적, 종교적 차별 없이 국민에게 완전한 민족적, 종교적 조화를 제공하는 모범국가로 전 세계에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슬림 세계연맹은 국제 비정부 기구로 사우디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온건한 가치를 전파함으로써 이슬람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종교적, 민족적 화합을 증진함과 동시에 캄보디아의 관광 부문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캄보디아 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관광객이 23% 증가한 가운데 단일 국가로서 중국이 세 번째로 큰 외국 관광객이다.

한편 중동에서 온 방문객은 2023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12만 3000명의 관광객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중동과 기타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이슬람-불교 정상회담은 종교적 관용과 포용성의 이미지를 투사하려는 캄보디아의 광범위한 노력과 맞닿아 있으며, 동시에 관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종교 간 외교를 활용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 가르침 빛으로 비추다

보디패스 영화제 3월 11일 성료
영화 상영·토론 불교 가치 공유



보디패스 영화제 2025 포스터.
사진출처=인도 언론정보국

지난 3월 11일 인도의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은 국제불교연합(IBC)과 달라이 라마의 보편적 책임 재단이 공동 주최한 보디패스 영화제가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영화제는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통찰을 선사했다. 불교 철학이 현대 사회에 위안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영화라는 강력한 매체를 통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이번 영화제의 핵심 목표였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부처님 가르침, 자비, 마음챙김, 무상 등의 가치를 조명하는 작품들로 엄선한 총 10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이외에도 학자, 영화 제작자, 수행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마련됐다. 대화의 장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과 현대 영화의 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평화와 마음챙김을 증진하고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패널 토론에서 인도 배우 가간 말릭은 “명상은 마음챙김의 실천이다. 명상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1920년대 한국불교, '야구'로 포교했다

이성수 동국대 겸임교수, '전자불전' 26집서 주장

대구불교청년회 '체육 포교' 조명
지역 소학교 학생 단원으로 구성
백석기 회장 중심 체계적 육성해
대구지역대회서 우승까지 거머쥐
1920년대 혁신적 불청운동 사례
근대체육사+불교운동사 연구 기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스포츠를 통한 포교는 현대 한국불교계에서는 익숙해진 포교활동이다. 지역불교계나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스포츠를 통한 친목도모와 신행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스포츠 포교의 기원이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혁신적 불교청년운동의 방편으로 이뤄졌음을 조명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성수 동국대 겸임교수(불교신문 편집국장)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 스님)가 발간하는 학술지 〈전자불전〉 26집에 게재한 연구논문 '1920년대 불교계 소년야구단 설립과 활동 연구'를 통해 1920년대 대구 조선불교청년회가 운영한 소년야구단의 설립과 활동을 고찰했다.

특히, 이번 연구논문은 오시마 가쓰타로(大島勝太郎)가 쓴 〈조선야구사(1932)〉에도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근대 한국 야구 및 체육사와 지역 불교청년운동사 연구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이성수 겸임교수에 따르면 불교계의 야구 활동은 종로 각황사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각황사는 보성학교와 인접해 있었고, 사찰 옆 운동장은 학생들에게 근대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됐던 체육 교육을 할 수 있던 공간이었다. 1924년에 이르러 보성학교가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관리로 넘어가며 불교계의 야구 활동은 체계화됐다. 이를 통해 당시 학교 이사진들이 근대 체육 교육의 중요성과 체육을 통한 청소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불교계의 체육활동은 1920년대 대구, 공주, 진남포 등 중요 도시의 불교청년회로 확장됐다. 이성수 겸임교수는 대구의 '조선불교청년회'의 활동에 주목했다. 1920년 6월 27일 100여 명의 불교 청년들이 모여 창립한 조선불교청년회는 최근 불교청년운동가로 불교학계에 주목받고 있는 '백석기'가 회장을 맡았고, 임원진도 부회장·총무·각 부장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체육부장'이 임원진에 있었다는 점은, 당시 조선불교청년회가 체육활동을 주요사업으로 인식했음을 잘 보여준다.

조선불교청년회의 소년야구부는 늦어도 1920년대 초반, 빠르면 1910년대 후반에 창단됐을 것이라고 이성수 겸임교수는 추정한다. 이들에 대한 첫 기록이 1921년 8월 밀양 원정 경기이기 때문이다. 1921년 8월 동아일보 기사에는 "15세 이내의 아동으로 야구를 원정한 일은 우리 운동계를 위하여 기뻐할 일이며 대구로서는 처음 되는 일"이라고 기록돼 있다.


大邱少年野球大會
大邱青年會主催大邱少年野球大會들은去十九日、二十日兩日間開한바第一日은七星町鐵道局運動場에서行하얏다參加團體는朝鮮佛教青年會少年野球部를始하야西星體育團、光進團、海星學校、喜媛學校、武光團의六個團體니定刻인午後一時半이되야各選手의入場式이有한後大邱青年會運動部長李愚震氏의開會辭와始球式을맛치고喜媛軍과武光軍이對戰하야武光軍이敗하얏스며다음에海校軍과佛教軍이相戰하야海校軍이敗하얏슴으로써第一日의幕을閉하고第二日은高等普校運動場에서午前十時부터海體軍과光進軍이始戰하야海體軍이敗한後最後의決勝戰으로喜媛軍과佛教軍의對戰에喜媛軍이敗하고마지막으로佛教軍과光進軍이雌雄을決하게되야勇戰一時半餘에結局最優勝의月桂冠은佛教軍의頭上으로歸하얏다일로써大會의終을告하얏는바二日間觀衆이無慮千名의盛況을呈하얏섯다이에優勝旗들압세운佛教軍은會長白奭基氏와함의自働車二臺에分乘하야府內를一週하고樂天食堂에서一同이晩餐을共卓한後同會館으로歸하야各散하얏다더라(大邱)

1921년 11월 29일 동아일보 기사. 대구소년야구대회에서 불교군(소년야구단)의 우승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년야구단의 구성도 눈길을 끈다. 10세 이상 15세 이하의 소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야구단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상대팀의 연령대가 15~22세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교의 소년야구단은 단순한 운동부가 아닌 지역 청소년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졌다는 게 이성수 겸임교수의 주장이다.

이런 교육의 성과였을까. 조선불교청년회 소년야구단은 1921년 11월 대구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921년 11월 29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불교군(佛教軍, 소년야구단)이 1시간 30분여의 용전(勇戰) 끝에 우승했다'고 기록돼 있다. 우승 후에는 자동차 2대를 동원해 카퍼레이드를 했으며, 낙천식당에서 만찬도 가졌는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사였다. 이 역시, 백석기 회장을 중심으로 조선불교청년회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성수 겸임교수는 소년야구단의 운영방식이 매우 선진적이었음을 주목했다. 이성수 겸임교수는 "정기적인 훈련, 타 지역과의 교류전, 대회 참가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선수 선발과 육성 과정에서도 지역 내 소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안정 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는 이후 한국 스포츠 단체 운영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와 밀양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야구 경기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이었다. 이는 근대 스포츠를 통한 지역 간 교류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전국적인 체육대회 개최의 토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불교청년운동사에서도 소년야구단의 창단과 이후 활동은 혁신적인 사례라고 이성수 겸임교수는 평가했다. 이성수 겸임교수는 "청년회가 종교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특히 백석기 회장의 활동에서 보듯이, 불교청년회는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당시 불교계가 추구했던 사회참여적 종교활동의 한 모델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불전〉 26집에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통불교문화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4편의 논문과 일반 연구논문 5편이 게재됐다.

통일신라 조형美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지정

국가유산청, 3월 11일 지정예고
전통건축 처마곡선 재현 옥개석
절제미 갖춘 조각기법 가치 인정

통일신라시대 조형미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사진〉이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의 동리산문(桐裏山門)을 세운 적인 선사(寂忍禪師) 혜철(慧徹, 785~861)의 부도(浮圖)이다.

동리산문은 신라 헌덕왕(809~826) 이후 당나라에서 선법(禪法)을 받은 유학승들이 귀국하여 형성한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태안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파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여러 개의 석재를 짜 맞추어 조립한 가구식 기단을 별도로 조성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부도탑의 전형이다. 탑 맨 아래에 위치한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형상의 사자상이 양각(陽刻, 돋을새김)되어 있고, 석탑의 몸을 이루는 탑신석 양 옆면에는 목조건축의 기둥과 인방(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가로부재) 등 목부재를 본떠 새겼다. 문비(門扉)와 사천왕상 등은 평면적으로 섬세하게 조각하여 하나의 조형물에서 역동적인 조각기법과 절제된 조각기법을 동시에 사용했다.



전체적인 비례감과 조형미가 뛰어나며, 목조건축의 지붕 형상을 본떠 조각한 옥개석은 전통한옥의 처마곡선과 목부재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비문에 시호(적인)와 탑의 건립 시기(861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팔각원당형 부도탑의 편년 기준작이 된다"며 "기단 주변에 남아 있는 4개의 주초석은 통일신라의 승탑 중 유일하게 예불 행위를 위한 탑전(塔殿)시설을 갖추었던 흔적으로 추정되어 역사·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보로 지정한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역사의 섬' 강화 삼랑성 역사문화 사진 공모전

전등사 주최…9월 1~31일까지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가 삼랑성의 역사적 가치와 전등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2025년 제2회 삼랑성 역사문화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등사와 삼랑성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사진으로 그간의 발전과 변화를 조명한다.

공모 부문은 '옛 사진 부문'과 '일반 사진 부문'으로 나뉜다. 옛 사진 부문에서는 2000년 이전 촬영된 전등사와 삼랑성의 역사적 사진을 모집한다. 일반 사진 부문에서는 삼랑성과 전등사를 주제로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전은 연령·학력·지역·국적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일반 사진 부문은 1인당 4점, 옛 사진 부문은 1인당 2점 이상 제출해야 한다. 작품은 해상도 3000픽셀 이상, 파일 용량은 3MB 이상, 10MB 이하로 jpg 형식을 갖춰야 한다.

접수는 올 9월 1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live@jeondeungsa.org) 또는 웹하드(아이디 : mgb90 / 패스워드 : 1230)로 신청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 24일 전등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김내영 기자

"팔도장터관광열차 타고 템플스테이로 떠나자"

문화사업단 · 코레일 협력
3월 22일 서울역서 출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코레일관광개발과 협력해 3월 22일 서울역에서 팔도장터관광열차를 타고 출발하는 당일형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이번 기차여행은 호남선 중심 10개 사찰에서 차담, 명상, 단주 만들기 등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후, 지역 전통시장 및 명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사찰에는 갑사(충남 공주), 금산사(전북 김제), 내소사(전북 부안), 마곡사(충남 공주), 무량사(충남 부여), 반야사(충북 영동), 법주사(충북 보은), 송광사(전북 완주), 영국사(충북 영동), 지장정사(충남 논산)가 있다.

특히 이번 기차여행에 포함된 템플스테이 참가비는 60%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상품 예약과 문의는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또는 전화(1544-7755)로 가능하다.

김내영 기자

국내 최초 '불교정신치료'를 개척한 정신과 의사 전현수 박사,
40년간의 공부와 수행으로 검증한 불교를 말하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한 말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크고 작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괴로움은 점점 줄어든다. 나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괴로움이 있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괴로움은 계속되었다. 이때는 이래서 괴로웠고, 그때는 그래서 괴로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니 그런 괴로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 본문 중에서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불교 사용 설명서
삶과 수행으로 검증한 초기불교의 가르침
전현수 지음 | 640쪽 | 30,000원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마음을 씻는 경전' 세심경洗心經 『주역』
핵심만 알아도 세상 문리가 트인다!

동양철학 최고 고전 『주역』의 인문학을 섭렵하는 순간,
세상 이치와 통하는 인생 경영의 키를 쥐게 된다!



세계적 인물들이 극찬한 『주역』

『주역』을 가죽끈이 3번 떨어질 정도로 읽은 공자
"배우게 된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

『주역』을 500번 탐독한 탄허 스님
"불교를 제외한 최고의 철학!"

『주역』과 무의식을 접목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책"

마음을 씻고 세상을 꿰뚫는 경전
주역의 눈
이선경 지음 | 272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2~3/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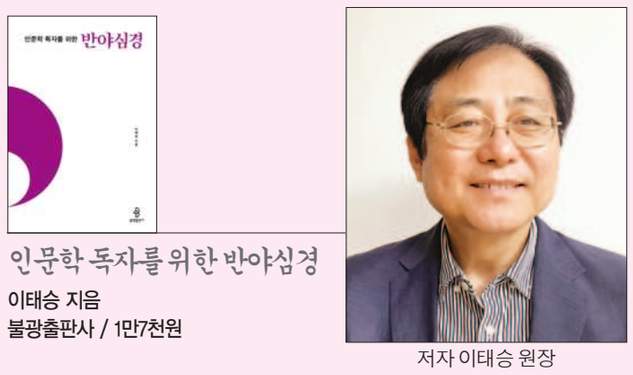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문일수	운주사
2	니까야강독2(초기불전006) 교학과 수행	각묵,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7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 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비움과 금강경:근본불교와 대승에서의 공	시현 번역과 해설	사유수
4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9	치유하는 유식 읽기(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유식30송)	서광스님 강의	공간
5	불교문화(조계종신도교재4)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불교와 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21) 불교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다	엘런 윌리스 편집	운주사

책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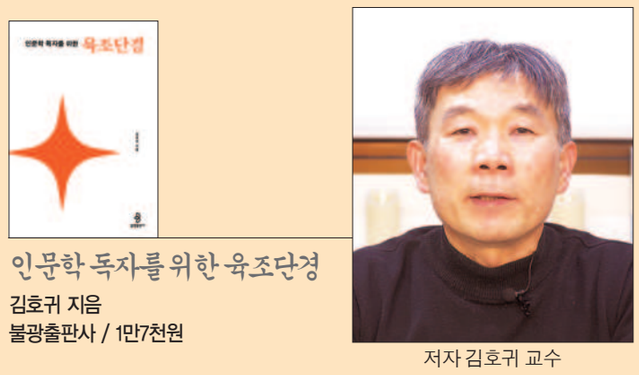
'인문학'으로 읽는 니까야·반야심경·육조단경



저자 최경아 박사



저자 이태승 원장



저자 김호귀 교수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경전은 종교적 신념과는 상관없이도 읽을 수 있는 인문학적 차원의 고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신념 없이는 불교경전에 빠져들기 어렵다. 불교경전이 인문학적 텍스트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인문학적 독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분량이 방대하고 경전마다 극복해야 할 문장이 많기 때문이다.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공부를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신앙적 차원의 동기부여가 동반된다면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완독을 하기란 쉽지 않다. 완독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이 불광출판사의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이다. 지난 2023년에 1차분으로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3권의 책이 출간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2차분으로 4, 5, 6권 〈니까야〉 〈반야심경〉 〈육조단경〉이 출간됐다. 이번 시리즈 역시 1차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판형으로 만들어졌다. 불교경전의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 대중적인 문장으로 해당 경전을 소개한다. 단순히 경전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해당 경전이 어떤 경전이며, 왜 만들어졌으며, 왜 읽어야 하는지, 또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 지 등을 조목조목 쉽게쉽게 짚어준다.

시리즈 4권 〈인문학 독자를 위한 니까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를 소개하는 책이다. 〈니까야〉의 가르침은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늙음과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 목표를 추구한 결과로 '나'라는 것은 없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니까야〉의 가르침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문제의식은 〈니까야〉의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문학 독자를 위한 니까야〉는 방대한 〈니까야〉 내용 중에서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엄선해 설명한다. 독자는 책을 통해 불교 본연의 의문과 해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불교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니까야〉는 많은 불교 경전 중에 합송(合誦)으로 전해진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성을 고스란히 문자화시킨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역 경전 중에서는 〈아함경〉이 〈니까야〉에 해당하며, 내용상 많은 부분이 〈니까야〉와 비슷하다. 〈니까야〉는 하나의 경전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상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쿳다까니까야〉로 구성된 5부 〈니까야〉에 대한 통칭이다.

저자인 최경아 박사는 책에서 인도 유학 시절의 체험을 말하기도 하고, 본인의 독서 경험, 인도의 전래 우화를 소개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친근한 문체로 이야기하듯 들려주면서도 〈니까야〉의 가르침을 제대로, 깊이 있게 전한다.

시리즈 5권 〈인문학 독자를 위한 반야심경〉은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반야심경〉을 다뤘다. '반야경'은 하나의 경전에 대한 명칭이 아니다. '반야경'은 소품으로 분류되는 〈도행반야경〉 〈팔천송반야경〉 등과 대품으로 분류되는 〈방광반야경〉 〈대품반야경〉 등 여러 '반야경'들에 대한 통칭이며, 이 경전들은 기원전 100년경에서 기원 후 1200년경에 이르는 긴 시간에 걸쳐서 성립됐다. 〈반야심경〉은 이러한 '반야경'의 핵심 사상을 요약한 경전으로,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 2차분 〈니까야〉 〈반야심경〉 〈육조단경〉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판형으로 제작

불교경전 핵심 내용 쉬운 문장으로 설명

각 경전의 정의·목적·주요내용 등 쉽게

한역본으로는 소본 2종과 대본 5종이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반야심경〉은 소본으로 분류되는 현장 역 〈반야바라밀다심경〉이다. 대승불교의 진수를 불과 260자의 한자로 압축해놓은 현장 역 〈반야심경〉은 그야말로 한국 불자의 삶과 함께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반야심경〉은 불교의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짧고도 익숙한 경전이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일반인의 눈에는 〈반야심경〉의 간단해 보이는 글자 하나하나가 암호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라면 그 암호들을 불교의 기본 개념들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더욱 넘기 힘든 난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반야사상의 권위자인 이태승 전 위덕대 교수가 집필한 〈인문학 독자를 위한 반야심경〉은 〈반야심경〉에서 언급되는 오온, 십이처, 십팔계, 십이연기, 사제와 같은 불교의 기본 개념들을 간명하게 짚는 것은 물론, 일반인에게는 낯선 지혜륜 역 대본 〈반야심경〉과의 교차 검토까지 하며 공에 대해 살펴본다. 불교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불교를 배태한 인도철학의 맥락에서도 공을 다루는 접근법 역시 이 책의 장점이다. 이를 통해 책은 대승불교의 핵심인 공을 명징하게 설명한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길이며, 공은 그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 독자를 위한 반야심경〉 역시 이 부분에 주목한다. 책은 공성(空性)의 체득, 즉 반야바라밀다에 대한 설명을 디딤돌 삼아 자신과 타인의 구별이 신기루 같이 사라지는 대자유의 경지에 대해 말한다. 이런 경지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스스로를 구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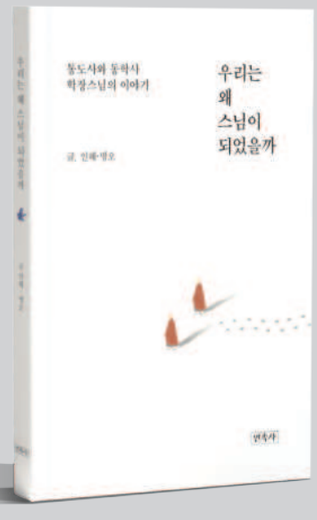
시리즈 6권은 〈인문학 독자를 위한 육조단경〉이다. 〈육조단경〉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승인 혜능(638~713)의 어록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선불교에서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經)'이라는 명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문헌에서만 붙일 수 있는 것이지만, 〈육조단경〉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선종, 그리고 한국 선종에서 〈육조단경〉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만큼 중요한 문헌임을 보여준다. 책은 〈육조단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쉬운 언어로 풀어준다.

〈육조단경〉은 불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육조단경〉은 대개의 불교 경전이나 논서와는 달리 사변적인 가르침보다는 혜능의 생애에 있었던 구체적인 일화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 일화들에 담긴 의미를 일반인이 속속들이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책은 〈육조단경〉이 그려내는 일상 속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한다. 왜 혜능이 일자무식의 이미지로 그려졌는지, 왜 혜능을 둘러싸고 중국 선종사의 법맥 논쟁이 일어났는지 등 여러 의문들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책은 이를 통해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 혜능이 말하고자 했던 참뜻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부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한 경전 이외에 불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불교 문헌 가운데 하나가 〈육조단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육조단경〉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발생하고 전개되며 전승되었지만 널리 그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자 문화권을 넘어 다른 문화권까지 소개되어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통도사 학장 인해 스님과 동학사 학장 명오 스님의 출가 이야기



승려의 삶을 사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디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참된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행히 여기에 내 옷이 있었다.

인해

스물 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發心이 이겼다.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명오

글 인해, 명오 | 17,500원 | 296쪽

인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해인사 강원과 조계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해인사, 수덕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우리말 법화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남종의 선사상 연구〉,〈혜능의 좌선관〉외 다수가 있다. 제3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명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영문학과(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역서《대승기신론열망소》로 제1회 반야학술상 저역상, 저서《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로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붓다북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은〈초기불교 병인론과 대승불교 사경 공덕 및 심신치유에 관한 연구〉,〈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열반경》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계율 사상 연구〉등 다수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깨달음의 길 보여주는 두 스님의 출가 이야기



도량 마당을 쓸고 있는 인해 스님.



먼저 출가한 두 언니스님들과 함께. 좌측이 명오 스님.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인해 · 명오 스님 지음
민족사 / 1만7천5백원

인해 · 명오 스님 출가이야기 책으로
출가 의미 · 과정 · 수행자의 삶 담아
고민 · 성장 · 수행서 발견한 행복 그려
절에서 준 비빔밥 · 빵 과자, 출가로
두 언니도 출가 "출가, 감동 도가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이 고통과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최상의 진리를 얻기 전엔 결코 나를 키워주신 마하빠자빠띠와 아내 야소다라를 찾지 않으리라." 붓다는 그렇게 시작된다. 출가에서 시작된다. 출가는 자신을 찾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수행의 길이다. 선택받은 이들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용기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열린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을 쉽게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책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는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인 인해 스님과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인 명오 스님의 출가이야기다. 한 권의 책이지만 두 권의 책이다. 책은 두 스님의 출가이야기를 통해 출가의 의미와 과정, 그리고 수행자의 삶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출가자의 진솔한 고민과 성장,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수행 속에서 발견한 행복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출가는 가족관계의 변화의 시작이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에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과 부모가 준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선택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집을 떠나 진리를 찾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출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특히 두 스님의 솔직한 고백은 출가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책은 단순히 종교적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찾는 두 스님의 이야기이다. 수행자의 삶을 통해 발견한 자유와 행복, 그리고 세상에 대한 헌신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는 모든 대중에게 열린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는 '출가' 안내서다.

인해 스님 "빵 맛 이끌려 절집 인연"

"출가는 단순히 머리를 깎고 사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선택의 과정이며, 나아가 모든 중생을 위한 깨달음의 길을 여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번뇌와 미혹에서 벗어나 '나는 누구인가'를 간절히 찾는 길입니다. 출가의 길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참된 수행의 여정입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아 나서듯, 망설임 없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출가의 본질입니다."

인해 스님에게 불교에 대한 처음 기억은 부처님오신날 큰누나와 함께 갔던 집 근처 작은 절, 그리고 그곳에서 먹었던 비빔밥이다. 스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당시 고등학생이던 큰누나는 마산 정법사 불교학생회 회원이었다. 스님은 가끔 큰누나를 따라 정법사에 갔다. 간식으로 빵과 과자를 먹을 수 있었다. 빵은 비빔밥보다 훨씬 맛있었다. 스님은 빵 맛을 알고 난 후부터 머리에서 정법사가 떠나지 않았다. 절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그렇게 스님은 소박하고도 단순한 인연으로 불교와 만났다. 스님은 "어쩌면 그 시절의 어렴풋한 그 기억들이 승복을 입고 있는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출가자의 삶을 사는 내내 단 한 번도 자신이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중생제도를 발원하며 출가를 다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국경을 넘어 전법을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인연'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스님은 누구나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고 '참된 나'를 찾을 것을 기원한다.

명오 스님 "어릴 적 장래희망 '스님'"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출가 수행자의 본(本)이 되어준 많은 스님이 그랬다. 속가를 떠나온 나를 구속할 사람은 누구도 없고, 나 자신과 대면할수록 성장하는 나를 느꼈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참 좋다. 수행법은 다양하고, 내가 선택해서 잘하든 못하든 묵묵히 가면 된다.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불법에서는 모두 다 공부 아닌 것이 없다. 손해가 미덕이고, 가난이 공부의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삶이다."

명오 스님의 출가의 시작은 스님 위로 있는 언니 셋 중 두 언니의 출가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의 어릴 적 장래희망이 '스님'이었고, 출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연이었다. 스님은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발심으로 이겨냈고, 자유로운 출가 수행자의 삶을 선택했다.

스님에게는 언니 셋과 귀한 남동생이 하나 있다. 대를 이을 아들이 막내였지만, 부모님은 딸들에게 경상도에서 그 흔한 '가시나'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딸바보'였다. 작은 말썽 하나 없이 평범하고 바르게 자란 스님 자매는 큰언니를 시작으로 하나 둘 출가했다.

큰언니의 출가는 엄마의 고된 삶이 계기였다. 고단한 여자의 삶을 지켜보는 동안 '출가'가 움텄다. 큰언니는 엄마의 고된 시집살이를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일찌감치 책으로 부처님을 만났다. 아들을 보지 못해 시집살이를 하던 엄마가 드디어 막내로 아들을 보았다. 3년 뒤 17살의 큰언니는 설날 전, 책상 서랍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입산했다. 혜송 스님, 큰언니가 혜송이란 이름을 받고 난 후 반전이 일어났다. 스님의 가족은 물론 친척, 동네 사람들까지 '불자'가 되었다.

명오 스님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사건이 또 일어났다. 셋째 언니의 출가였다. 고등학교 졸업여행을 간다고 나선 언니는 대학교 입학식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셋째 언니는 떠나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천수경을 독송했다. 셋째 언니의 출가 발심은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막내딸이던 명오 스님은 23살이 된 어느 봄날에 숨겨져 있던 '출가'의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한다. 세속의 인연도 소중한 것이라 '부모님 곁'도 지켜보리라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안 되는 일이었다.

"스물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이 이겼다. 출가하여 이 길을 가고 있는 내가 참 고맙다. 〈중략〉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오롯이 나일 수 있는 길, 출가다."

철학적 선학, '선의 정체성' 철학적 확인 작업



철학적 선학
신오현 지음
파라아카데미 / 2만5천원

고 신오현(1938~2021) 교수의 논문 7편을 묶은 〈철학적 선학〉이 출간됐다. 신 교수는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및 동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철학과 및 미국 뉴욕주립대 등에서 40여 년간 철학 강의를 했다.

이번 책에서 주목할 것은 앞부분에 실린 세 편의 논문, '선·불학의 철학적 본성: 선험-현상학적 해명' '선·불학과 21세기철학' '반본환원과 선학의 현관: 신험현상학적 환원과의 유비적 해명'이다. 이 세 편의 논문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철학적 선학'이다.

그렇다면 철학적 선학은 어떻게 가능하며 그것의 철학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위 세 편의 논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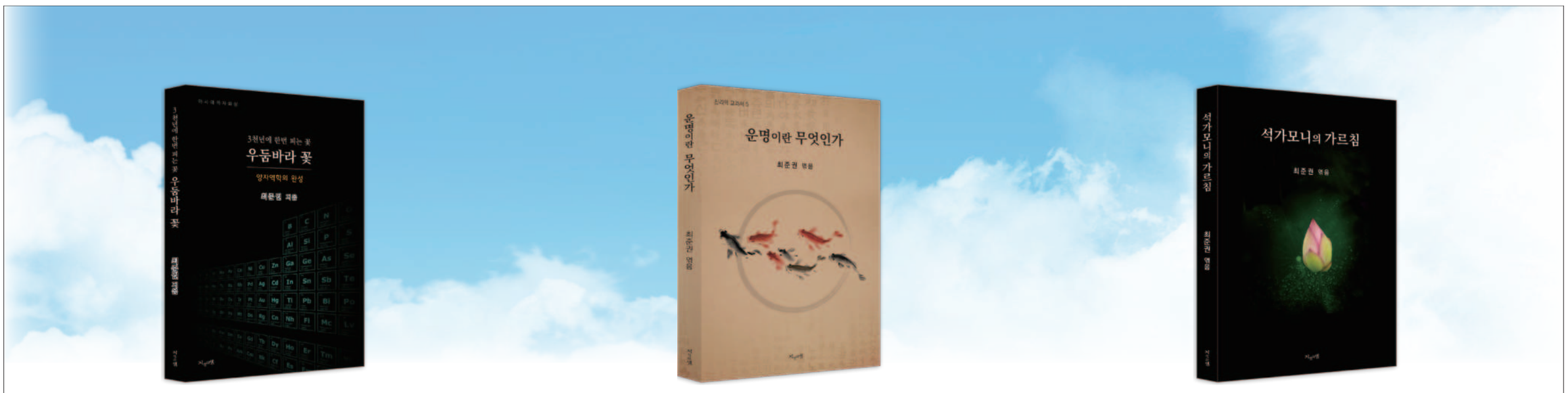
"결국 '선에 대한 철학적 연구' 즉 철학적 선학은 '선의 정체성'을 철학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철학의 정체성'을 선학적으로 확인하는 작업과 상호동반적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일 수밖에 없겠다."

논문을 보면, 동양의 불학이 플라톤 이래 서양철학이 그토록 추구해온 보편적 철학이념과 그 근원에서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양철학이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발견한 그 철학이념(선험현상학)이 놀랍게도 중국의 중세 선·불학에서 일찌감치 완성됐다는 것, 그리고 엄연한 사실은 세계적 차원에서 '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담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학문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학문으로서 철학의 정체성 문제를 역사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가볍게 외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적 선학이 이 책에 실린 모든 글의 주제는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현상학 혹은 현상학적 방법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논문은 궁극적으로 철학적 선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책 〈철학적 선학〉은 신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뜻을 모아 유가족의 허락을 얻어 만들었다.

박재완 기자



3천년에 한번 피는 꽃
우둠바라꽃/양자역학의 완성
이 세상은 그물망처럼 심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
과학자들이 과거 100년 이상을 풀지 못한 양자의 중첩과
얽힘 현상을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풀 수 있었을까
최준권 지음/신국판/무선/272쪽/값16,000원

자아를 되찾고 자신을 구하는 삶의 길
운명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물레방아처럼 반복해서 돌며 변화를 통해
윤회하고 있다. 넓은 눈으로 창조와 진화를 관찰하면
이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준권 엮음/신국판/무선/264쪽/값16,000원

부처님의 말씀으로 엮은 깨달음의 세계
석가의 가르침
3천년 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인 극락에서
머무시던 부처님의 영혼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받아 왕자로 태어나셨다.
최준권 엮음/ 신국판/무선/256쪽 / 값16,000원

지성의샘 / 서울 중구 을지로14길 16-11 / TEL. 02-2285-0711 / FAX. 02-338-2722 / 이메일 gonggamsa@hanmail.net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⑪ 때를 기다려라

▶한줄 요약
세상의 모든 현상은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때가 되면 그 결과가 한 치 오차 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마음을 잘 쓰는 이는 때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때가 되면 새벽은 찾아옵니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어두운 밤 지나면 새벽 고이 오는 것을
굳이 불을 밝혀 먼 산천을 보려는가.
구름 걷히면 산은 스스로 드러나건만
청산이 사라졌다고 비구름을 원망하랴.

세상의 모든 모습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연에 의해 돌아가고 있으니, 때가 되면 생겨나고,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것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때가 되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긍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새벽이 오고, 때가 되면 구름이 걷힐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한, 한 치 오차 없이 나타나는 인연의 결과에 대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긍정하지 않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애를 쓴다고 새벽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 밤을 거부한다고 밤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일상을 살아가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는지, 지나친 욕심으로 결과에 대해 억지를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자신을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편하고 좋을 것이나, 수억 겁(億劫) 쌓인 욕심을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힘들 것입니다. 최소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나의 업연(業緣)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구나" 하고 긍정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 즉시 편안한 마음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모든 현상 인연에 의해 돌아가고 있어**
> **때가 되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이치**
>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불편해 말라**
> **집착 내려놓는 '쉘패스 명상' 실천하길**

꽃이 피면 "꽃 필 때가 되었구나", 꽃이 지면 "꽃 질 때가 되었구나", "꽃이 피는 것은 이렇구나", "꽃이 지는 것은 이렇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긍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터인데, "꽃은 왜 이렇게 피는 거야", "꽃은 왜 빨리 지는 거야" 하고 지나친 욕심으로 대한다면 스스로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때가 되면 그 결과가 한 치 오차 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마음을 잘 쓰는 이는 때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 편안함을 얻을 것이고, 마음을 잘 쓰지 못하는 이는 때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스스로를 괴롭히며 불편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다스림에는 쉘패스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쉘패스 명상은 마음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욕심과 집착을 놓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의 내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욕심이 앞서서 마음이 진정되지 못하다면 무조건 기도로서 극복할 일입니다.

[오늘의 명상]
악인(惡人)이 나타나면 화나고 싫으나
악인은 재수가 없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인의 성품 있어 스스로 보이기 때문이니
악(惡)의 성품 제거하면 악인은 나타나지 않으리.

만법(萬法)이 유식(唯識)이요, 일체(一切)가 유심조(唯心造)라 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내가 만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만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니, 마음에 없는 것은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의 성품에는 싫고 좋은 분별심(分別心)이 없으니, 싫은 것도 좋은 것도 결코 보이거나 들리지 않습니다. 차별 없는 마음, 자비심(慈悲心)이 있을 뿐입니다.

악인(惡人)은 물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나, 비단 사람뿐이겠습니까. 내 앞에 나타나는 싫고 나쁜 모든 현상을 말하는 것이니,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는 모습이 거울처럼 그대로 실제 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두 가지의 차별 즉, 좋고 싫은 감정이 계절이 돌아가듯 때가 되면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에 맞춰 좋고 싫은 인연이 보이고 들리는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좋은 성품이 있으면 좋은 일들의 인연을 만나게 되고, 마음 안에 나쁜 성품이 있으면 나쁜 일들의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재수가 없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좋지 않은 성품이 그대로 거울이 되어 나타난 것일 뿐, 나타난 상대 또는, 나타나는 일에 대해 탓을 한다면 누워서 침을 뱉는 어리석음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싫은 것, 나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실패, 아픔, 괴로움, 슬픔, 울고 싶은 것, 악한 것, 불안, 불편,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 속 모습이 거울처럼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므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제거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실제 모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그림자 명상입니다. 그림자 명상은 내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의 그림자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의 업(業)임을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그림자 명상은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담담히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연습은 내 마음 속 악의 씨앗을 없애고, 더 이상 외부로 투영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러니 마음 밖에서 무엇을 이루고 찾고자 함은 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은 고로, 어서 빨리 마음 돌려 마음의 종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고의 근본 원인을 찾아 길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선 기도로서 의지를 세우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63년차 중앙회장



유주연 대불련 중앙회장은 '종교는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나를 찾아 가는 과정'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불교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임기가 끝난 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낸 회장' '법우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움을 준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대불련은 인연!…젊은 세대 공감하는 불교 만들겠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새 학기가 시작된 대학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하다. 강의실을 오가는 학생들, 동아리를 홍보하는 선배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신입생들까지 저마다 설렘 속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속에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회장이다.

그는 각 대학 동아리 홍보 일정에 맞춰 캠퍼스 포교를 지원하고, 전국 지회를 돌며 포교 활동을 챙긴다. 동시에 중앙회 업무까지 도맡고 있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다.

"아, 나 중앙회장이었지!"

회장직을 맡은 지도 벌써 3개월. 실감이 나지 않다가도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새삼 그 무게를 깨닫는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다.

유 회장은 불교와 항상 자연스럽게 함께해 왔다. 신심 깊은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불교는 그의 삶 가까이에 있었다. 가족여행을 가면 꼭 사찰을 들르곤 했고, 보시를 실천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불교의 가치를 체득했다.

본격적으로 불교에 발을 들인 건 대학 입학 후였다. 어머니의 권유로 불교동아리에 가입했고, 이를 계기로 대불련 활동까지 참여하게 됐다. 돌아보면, 그에게 대불련은 '선택'이라기보다 쌓아온 인연의 결과와 같다.

그 인연의 시작은 부모님에게서 비롯됐다.

1990년대. 그의 어머니는 마산대에서, 아버지는 전북대에서 각각 대불련 활동을 했다. 두 사람은 전북대에서 열린 대불련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연말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올해 마지막 날은 보신각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새해를 맞이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락이 쉽지 않았고, 연말 인파로 서로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었다.

그때, 어머니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보신각 앞에서 "남북 화합"을 외치며 대불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였다. 그날의 우연한 재회는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고, 결국 결혼까지 골인했다. 유 회장은 부모님의 만남을 "부처님의 가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말했다.

대불련 출신인 부모님은 불교의 가치와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불교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어머니께서는 대학 시절 대불련 활동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학생 때야말로 불교를 깊이 배울 수 있는 적기라며, 저에게도 꼭 경험해보라고 추천하셨죠."

유 회장에게 불교는 단순한 동아리 활동이 아니었다. 대학 생활 중 크고 작은 고민과 방황의 순간마다 방향을 잡아주는 이정표 같은 존재였다. 디자인을 전공하며 졸업 전시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불교동아리 도반들과 함께하는 법회와 수행으로 마음에 평안과 쉼을 찾았다.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경구도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다. '스스로 등불이 되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나아가라' 뜻으로, 늘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가르침이다.

"살다 보면 남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 대신 길을 정해주길 바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내 안에서 빛을 찾고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하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유 회장은 2023~2024년 창원대 불교동아리 회장과 대불련 창원지부장을 맡아 직접 동아리를 키운 경험이 있다. 창원대 불교동아리는 대불련 산해원지부(마산, 진해, 창원)와 역사를 함께하며 1975년부터 교내 연등행사를 비롯해 장학금 모금·지원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후 2015년을 기점으로 활동이 중단됐고, 오랜 기간 명맥이 끊긴 상태였다. 그러던 중 유 회장은 지역 스님과 불자들의 지원 속에 8년 만에 불교동아리 재창립을 이끌었다. 유 회장은 한동안 멈췄던 활동을 재개하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맨땅에 헤딩'하듯 동아리 박람회에 참가해 불교를 알렸고, SNS 홍보로 회원 모집에 힘썼다. 그 결과 회원 수 70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고, 동아리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불교를 배우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큰 기쁨이었고, 이 경험은 지금의 그를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됐다.

대불련 출신 부모님 권유로 활동 시작
8년 만에 창원대 불교동아리 재창립도
'매뉴얼북·가이드북' 연내 발간이 목표
"불교=나를 찾는 과정, 한 단계 성장"

임기가 끝나자 그는 괜스레 아쉬움을 느꼈다. 배운 것을 더 활용하고 싶었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었다. 고민 끝에 대불련 중앙회장직에 도전했고, 많은 이들의 지지 속에서 중앙회장 역할을 맡아 전국 18개 지부 180여 개 대학 불교동아리를 대표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62년차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2025년을 시작으로 대불련이 한층 더 성장하고 여법하게 활동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포교와 전법에 힘쓰고 새롭게 불교를 접한 대학생 청년 법우들이 즐거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만큼 중앙회장은 책임이 막중한 자리였다. "처음엔 큰 두려움 없이 가볍게 시작했는데, 막상 맡아보니 챙겨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나름 신경 쓴다고 해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극복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자리에 걸맞게 더욱 진중하고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 회장은 3월 대학 개강 시즌을 맞아 동아리 박람회 지원과 캠퍼스 포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에 배포되는 선물꾸러미는 디자인부터 문구 제작까지 그의 손길이 닿았다. 볼펜, 물티슈, 책갈피, 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물품 곳곳에 '충격! 부처님 실존! 그것은 내 안에!'" 같은 문구를 새겨 넣으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 "조금 신박하고 재미있게 불교를 접하게 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었다.

오는 8월 열릴 '영 부디스트 캠프'도 그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인 만큼, 그는 '즐거운 불교'와 '가치 있는 경험'을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주제와 프로그램 기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난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수인계 매뉴얼북'과 '불교동아리 가이드북'도 올해 안에 완성해 후배 불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불교동아리 법회를 절에서 해야 할지 강의실에서 해야 할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물어보기도 쉽지 않은 일이구요.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남겨 주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불교동아리 성장과 운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유 회장은 앞으로도 불교를 직접 실천하며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불교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다가오는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108배 수행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제가 생각하는 쉽고 재미있는 불교 활동은 '종교는 어렵다'는 인식을 깨는 것입니다. 사실 교리에 이해도가 높진 않지만 '나'를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불교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하죠."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힙한 불교'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 회장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이 멋지다고 느껴지니깐 불교도 힙한 종교가 되는 것"이라며 "멋진 나를 찾고 싶다면 불교로 오라"고 권유했다. 그는 이어 불교에 푹 빠진 젊은 세대를 일컫는 '불미새(불교에 미쳐 새롭게 태어난 사람)'를 언급하며 "불교를 가볍게 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진심으로 빠져드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나 역시 '불미새' 중 한명이라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의 목표는 분명하다. '종교는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힙한 불교'를 만드는 것. 그리고 임기가 끝난 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낸 회장', '법우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움을 준 회장'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그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① 이화여대 불교학생회 신입 회원 모집 부스를 응원 방문한 유주연 회장. ②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MZ셀카'를 찍고 있다. ③ 8년 만에 열린 창원대 불교학생회 재창립 법회에서 김성진 대불련 산해원지부 동문회장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❺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한줄 요약
무상의 이치를 알면 시인이 노래한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만 이를 모르면 집착으로 굳어지게 된다.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점철된 삶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무상을 자각하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시집 〈목마와 숙녀〉에 수록돼
가수 박인희가 노래로도 불러
무상 이치 알면 시인이 노래한
풍광들은 소중한 추억 되지만
이를 모르면 집착으로 굳어져
과거로 점철된 삶엔 행복 없다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2004년 EBS에서 제작한 〈명동백작〉이라는 작품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다.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했더니 '우리나라 문화 예술의 꽃을 피웠던 명동시대를 재조명하는 드라마'라는 홍보 문구가 눈에 띄었다. 오상순과 박인환, 김수영 등 당대 문학계를 이끌었던 작가와 명동, 선술집 등의 분위기가 어우러져 낭만적인 느낌을 주는 드라마였다. 배우 정보석이 내레이터로 참여하여 시대적 상황과 명동이라는 공간의 다양한 풍경을 전해주었다. 드라마에서 오늘의 주인공 박인환 시인은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문득 이런 말을 한다.

"산다는 건 의문투성이야. 시인은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지만,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려오지 않아."

어디 시인만 산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 애쓰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정답은 나오지 않는다. 드라마에서 시인의 아내 또한 "당신이 좋아하는 이상이라는 사람도 그런 대답은 못 찾아낸 것 같은데요"라고 말을 건넨다. 누구나 수긍하는 정답은 없더라도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사색하고 성찰하면 자신만이 내릴 수 있는 해답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자기 철학, 혹은 인생관, 세계관이라 부른다.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갖고 사는 사람과 오늘만 대충 사는 사람이 결코 같을 수는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런 고민을 하고 그 해답을 찾아 길을 나섰던 분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부처님은 성문 밖을 나가 늙고 병들어 죽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다. 그때 던진 질문이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문제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싯다르타는 출가를 결심하고 6년 동안의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도(道)를 이루고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한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연기(緣起)나 무상(無常), 무아(無我) 등의 가르침이 그때 완성된 불교의 세계관이다.

박인환은 큰 키에 호남형 얼굴, 정장과 코트가 잘 어울리는 멋쟁이 시인이다. 반면 31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간 비운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지주이자 박제된 천재 시인 이상의 기일을 기념한다고 3일 간 폭음을 하다 급성 알코올중독성 심장마비로 요절했다고 전한다. 박인환은 감성적이면서 술을 좋아한 시인이었다. 어느 시인은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 내가 옷 사 입나 / 술 사 먹지"라고 노래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에게 잘 어울리는 시다. 〈명동백작〉에서 정보석은 박인환의 마지막 모습을 전하면서 이런 해설을 덧붙였다.

"인생의 참혹함과 전쟁과 가난을 뒤에 두고 박인환은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예민한 그의 감수성이 술이라는 독약을 빌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것은 아닐까요."

대중에게 박인환은 가수 박인희의 노래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로 시작되는 '목마와 숙녀'는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시이기도 하다. 지금도 운전할 때 그녀의 목소리로 가끔 듣고 있다. 1955년 〈박인환 시선집〉을 출간했으며, 오늘의 시 '세월이 가면'은 1976년 발간된 〈목마와 숙녀〉에 실려 있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고 노래한 것처럼 시인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알려진 것처럼 '세월이 가면'은 명동의 어느 선술집에서 낭만적으로 탄생하였다. 술을 마시다 시상이 떠오른 시인은 그 자리에서 쓰기 시작했고 함께 있던 극작가 이진섭은 즉석에서 작곡을 했다. 마침 술자리에는 '백치 아다다'를 부른 가수 나애심이 동석하고 있었다. 곡이 완성되자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상상만 해도 참으로 멋진 풍경이다. 마음으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감상해본다.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 나뭇잎은 흙이 되고 / 나뭇잎에 덮여서 /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추억인가, 집착인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명제뿐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 1919~2011)의 말이다. 영원불멸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상(無常)의 의미를 간명하게 표현한 문장이다. 무상은 무아(無我)와 더불어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을 받치고 있는 든든한 기둥이다.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를 삼법인(三法印)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인(印)은 서류를 작성할 때 내용이 틀림없다고 인증하는 도장을 가리킨다. 세 가지 법(三法)이 우리의 삶에서 확실한 진리라는 뜻이다. 대승의 전통에서는 일체개고 대신 열반적정(涅槃寂靜)을 넣는데, 네 가지 전부를 포함해서 사법인(四法印)이라 부르기도 한다.

'세월이 가면'은 가수 박인희가 불러 널리 알려진 곡이기도 하다. 청아한 음색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젊은 날 가슴 설렜던 첫사랑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사랑 또한 무상하므로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사람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는다. 사랑했던 흔적만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으로, 그 벤치 위에 떨어진 나뭇잎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연인의 눈동자와 입술 또한 내 서늘한 가슴에 깊이 새겨져있다. 박인환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지금까지 '명동의 샹송'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억 때문에 현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집착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집착은 생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는 없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현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보자. 현실에는 지갑이 없지만, 마음에는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릴 수 없다. 아무리 '잊자, 잊자' 다짐해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다.

물건도 그러한데,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강도는 훨씬 커진다. 부처님 당시 어린 아들이 죽자 부처님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애원한 여인이 있었다. 부처님은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면 살려주겠다고 말한다. 사방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런 집은 없었다. 부처님은 왜 이와 같은 주문을 한 것일까? 부처님은 그녀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물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지만, 진짜 원인은 마음에서 아이를 보낼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현실에는 아이가 없는데, 마음에는 남아있어서 집착이 생기고 그것이 여인의 고통으로 이어진 것이다.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이가 없다는 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생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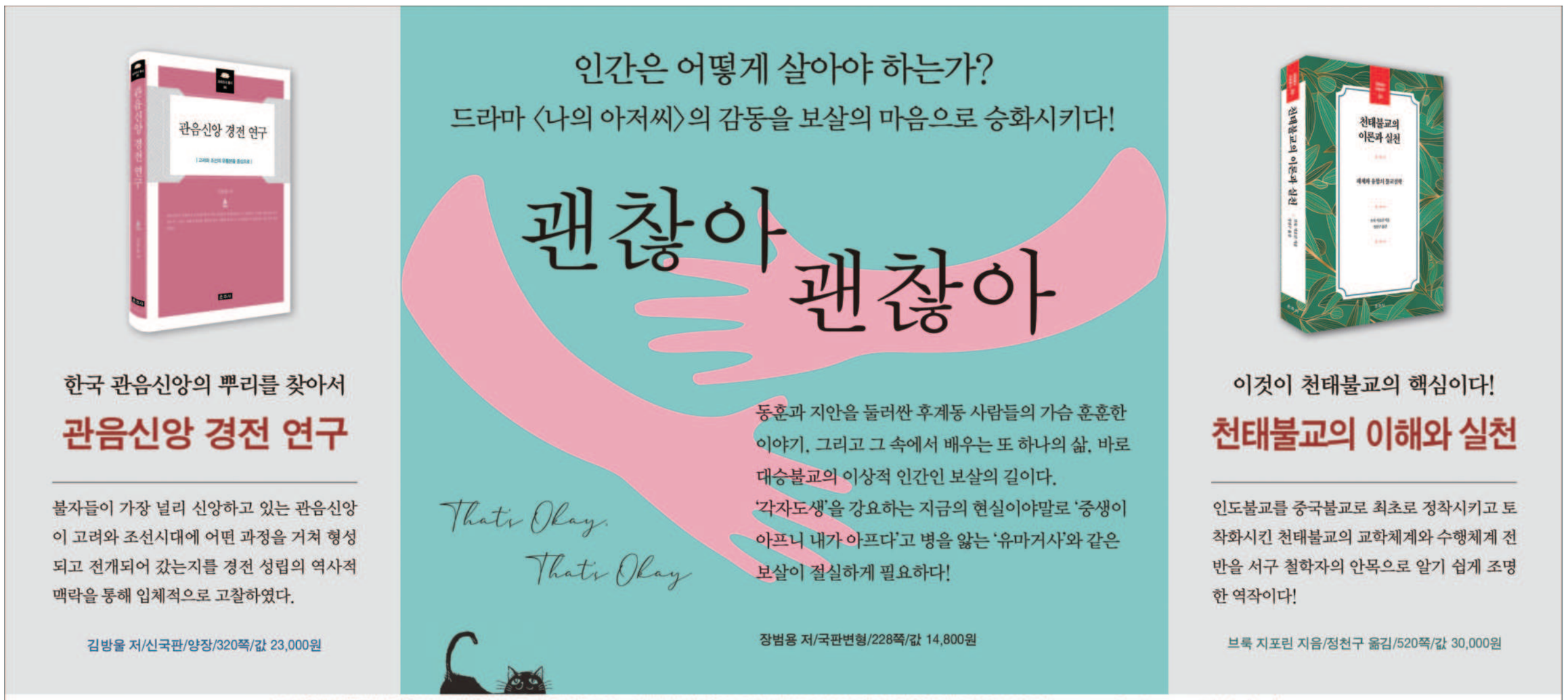
우리들 삶에서도 이미 지나고 없는데 '서늘한 가슴'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 시의 내용처럼 사랑하는 연인이 내 곁을 떠나 현실에는 없어도 마음속에 여름날의 호숫가로 남아있는 것이다. 혹여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운 오늘을 살고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잠깐 이외수 작가의 재미있는 문장을 읽어보기로 하자.

"꽃이 피었을 때는 꽃을 즐길 줄 알고 열매가 열렸을 때는 열매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인간들은 꽃이 피었을 때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知랄을 하고 열매가 열렸을 때는 꽃이 피지 않았다고 知랄을 한다. 그래서 知랄을 할 때마다 써먹으라고 '철모르는 놈'이라는 말이 생겼다."

〈하악하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글을 볼 때마다 불교는 철들기 위한 공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철을 모르면 연초록의 푸릇푸릇한 잎들이 나왔는데 벚꽃이 모두 졌다고 투정을 부리고 여름이 찾아오면 봄날은 갔다고 푸념을 한다. 이때 필요한 처방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이다.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무상한 삶속에서 순간순간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꿀 수 있다. 지금이라는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으므로 지나간 과거에 집착해서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는 뜻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또한 '무상을 자각하라'는 것이었다. 무상의 이치를 알면 시인이 노래한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만 이를 모르면 집착으로 굳어지게 된다.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점철된 삶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추억인가, 집착인가? 이는 결국 내게 달린 문제다. 바야흐로 봄이다. 쿨하게 겨울을 보내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봄을 맞이하자. 그럼 '서늘한 가슴'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봄날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23호 | 15 | 전면광고

어리석음이 더욱 미련해지지 않게 하며
성을 내며 억지로 원수를 짓지 않게 하며
다섯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건평 : 150평 외
- 매가 : 25억
- 부지 : 700평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위치 : 부산포교원건물
- 3층/5층, ev유
- 매가 : 13억
- 면적 : 120평실평
- 공원옆 건물, 주차가능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대지 : 약 320평
-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전통사찰 법당 30평 (웅장함) (단청 : 문화재위원 작품)
- 경남 창원시 변두리소재 명당
- 토지 7천평(추가구입 가능)
- 수목장 사용 최최고위치
- 4차선 국도에서 150m
- (대형버스 완전 진입가능)
- 가격 : 15억원(대출 11억원)
- 불기등등은 별도산정

– – 포교당 안내 – –

- 대구시 중구 중앙통 접
- 대구시 중구 남일동
- 40년 포교활동 중
- 주역에 능통한 분
- 큰 인연이되면 금액불문
- 신도 잘 보살필 분
- 1억 미만 암자와 교환 가
- 2025년 4월 05일 한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 가액 : 7억
- 대지 780평, 실사용 1000여 평
- 사찰 정리후 주지스님은 원하는 만큼 거주 할수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함

사 두실분이나 좋은절 갖고저 하시는 불자님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010-9477-0375

사 찰 안 내

- 위 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 중턱
- 대 지 : 350평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 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 가 액 : 답사 후 결정

010-7710-8334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 일층 법당 12–15坪
- 시설비용 400만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조정)

010-9910-5070
010-3906-3711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 요양원 2층 180평 (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앞 저수지 뒤 황학산 배산임수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
- 전세가능 : 보 4000 / 월세 40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4억5천(절충가능)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휴대세교길 234번길 24 대원사
- 법당 30평, 공양간 20평, 요사채 방2 거실1
- 가액 : 3억 2000만원(절충가능)

041-548-7181
010-3423-7181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객방마다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5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주 변 : 상가거리, 위치 좋음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유동인구 많음)
- 규 모 : 30평(3층)
  – 삼존불, 원불, 영단, 신중단
- 보증금 : 5백만원(월세 6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010-6416-0663

사찰(토지) 급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주택 40평(법당 이용)
- 대나무숲 250평
- 주차 100대 가능
- 토지 1505평

010-3565-1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6898-911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토굴암자 안내

- 주소 : 경북영천시 화남면 온천길 114 –3 무영사
- 대지 : 85, 법당 : 16, 요사 : 12
- 금액 : 4300만원

이곳은 소쿠리터라고합니다. 가장중심의자리에있어서 안정적 기운이맑고 편안한터입니다. 이도량은 비구니스님이거주하시면 잘어울릴것입니다.

010-8987-457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삼성암
- 주 지 : 혜영 스님 (속명 : 박점순)
- 승 번 : 016–51–0104
-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고노실1길 18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한국불교어산종 종도모집 안내

한국불교어산종은 영남범패 종단으로써 남성적이고 웅건함을 지니고 용맹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기질과도 닮은 영남범패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 시켜갈 수 있도록 함께할 종도 스님을 모십니다.

범패 교육원 수강생 모집

의식 및 사물
(쉽게 배울 수 있는 악보로 수업)

총무원장 010-2665-9108
어산원장 010-3156-2211

사)한국불교어산종 총무원장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23호 | 16 | 전면광고

계를 지키면 늙도록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되나니,
지혜는 사람의 보배요,
복은 도둑맞는 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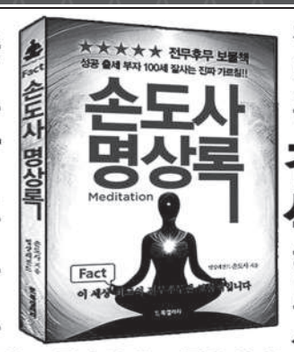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승가리
도균스님의 바느질공방
신제품 추동면티,신도용조끼 출시
속조끼 속고의 여름티 사폭몸빼
삼베모자 절가사 소품 등
4월3~6일 서울불교박람회 참가
NAVER 승가리 도균스님 검색
연락처 010-6788-5667
대한불교조계종 혜광사
경북 영천시 고경면 대지길 21-7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요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태아령 유산낙태, 남 · 여 구별법(예방법), 산소 무덤 물찬곳, 송사 재판, 암, 자궁암, 유방암
- 이혼수, 부도 • 배우자가 일찍 죽는 상 • 귀신 붙은 상 • 자살상, 중풍, 뇌졸중 상, 자식이 일찍 죽는 상 • 조상기도특수비법 작명, 아기이름, 개명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구성학
- 스님, 법사, 무당, 일반인, 특별책임 개인지도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교 의식 학인 모집
- 영남 범음 범패
- 49재 · 천도재 · 사시불공 등
- 북 · 징 · 경쇠 · 요령 · 목탁
- 매주 화요일 · 금요일 3시~5시
- 일반불자 수강가능

조은사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스님을 구합니다
오래 계시면서 조용한 절 찾으시는 스님 모십니다.
대구 동구 백안삼거리 인근 사찰
010-9363-2292
010-3805-2778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법랑용품 일절
- 아미타 3½ 관샘3자
- 지장3자 칠성3자
- 탱화(후불) 220×130
- 지장1점, 칠성불1점, 촛대풀셋트4 방석20, 인등200, 불전함1, 경상1 관욕불1, 관욕대1, 재기60, 영가등 300, 한지팔각등400 기타 등등

반야불교사
010-3803-2626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일반주택, 빌라, 상가 (기와/슬레트, 슬라브) 지붕공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및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꽃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육임AI 순회 효능 설명회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⑥ '동백꽃 필 무렵'(2019)

스스로 부처임을 알면 매일 꽃이 핀다

최근 임상춘 작가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공개되었다. 이 드라마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오애순(배우 이지은)과 양관식(배우 박보검) 부부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룬다. 아직 전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올해를 대표하는 드라마로 꼽힐 것 같은 예감이 들 정도로 반응이 심상치 않다.

임상춘 작가를 대표하는 드라마는 뭐니뭐니 해도 〈동백꽃 필 무렵〉(2019)이다. 탄탄한 스토리와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 덕에 마지막회 시청률이 23.8%일 정도로 인기도 많았고, 그런 인기를 반영하듯 여러 개의 상을 받으면서 2019년을 대표하는 드라마로 자리매김하였다.

〈동백꽃 필 무렵〉은 어린 필구(배우 김강훈)를 데리고 게장으로 유명한 '옹산'에 들어온 동백(배우 공효진)이 세상의 편견과 맞서고 '까불이'라는 연쇄살인범과도 싸우며 당당히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다. 그리고 동백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주변 사람들의 면면을 보여주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이자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알려주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동백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어 사는 것은 어머니 정숙(배우 이정은)에게 버림받고 미혼모로서 혼자 필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번듯한 가정을 일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 속에 지난 세월을 살아 왔다. 그나마 옹산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부녀회장 곽덕순(배우 고두심)의 사랑과 격려 속에 살고 있다. 항상 위축되어 있지만 실은 남이 뭐라든 행복을 찾아낼 줄 알고, 불의에 기꺼이 맞설 줄 아는 동백. 이런 동백의 본래 모습을 꺼내어주고 동백의 자존감을 북돋아주는 인물이 바로 덕순의 막내아들 용식(배우 강하늘)이다.

용식은 동백을 향해 항상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히 차고 넘치는 사람이어유"라는 낯간지러운 말을 진심으로 한다.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동백이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동백은 이런 용식의 태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내 걱정해 주는 사람 하나가 막, 내 세상을 바꿔요"라고 한다.

동백이 자신에게 집적대던 집주인 규태(배우 오정세)를 고소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바뀌



KBS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포스터.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 속에 살아온 '동백'
"고맙다"는 용식 덕에 본래 모습 되찾아
서로를 부처님으로 보면 불국토 세계 열려

게 된 것 역시 용식의 깜짝 생일선물 때문이다. 용식이 준비한 축하카드와 동백꽃 장식을 발견한 동백은 처음 받아보는 축하와 찬탄에 목놓아 울고 만다. 사실 이날은 자신이 보육원에 맡겨진 날이고, 정작 동백은 자신의 진짜 생일을 모른다. 하지만 용식은 "생일 모르면 내가 맨날 생일로 만들어 드린다"면서 동백의 34년이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한다.

다 알다시피 동백은 겨울에 피는 꽃이다. 그런데 동백의 생일인 8월에 왜 동백꽃이 필까?

생일을 모르면 맨날 생일 하자는 용식의 말을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중생인 우리가 새삼스럽게 부처가 되었다는 생각을 할 것 없이 항상 부처로 살자는 말이다. 그러니 부처로 산 동백의 지난 34년이 모두 훌륭할 수밖에. 용식의 이런 격려에 비로소 동백도 자신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각을 시작하고 자존감 없고 자신감 없는 사람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전환한다. 이는 동백이 스스로가 부처임을 자각하는 '초발심'의 대목이며 그것을 "꽃이 피었다"고 표현하였다. 드라마 제목인 '동백꽃 필 무렵'의 의미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동백이 처음 발심하자마자 깨달음을 이룬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동백꽃이 핀 무렵인 것이다. 보현행으로 보자면 부처인 용식이 또 다른 부처인 동백을 부처님으로 대했기에 자신이 중생인 줄로만 생각하며 부처인 줄을 믿지 않던 동백도 최면과도 같은 용식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부처인 줄을 알고 부처로 살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동백꽃 필 무렵〉은 용식과 동백의 이야기에 더해 향미(배우 손담비)의 죽음과 동백의 목숨을 노리는 연쇄살인범 까불이의 정체를 밝히는 미스터리와 스릴러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동백과 엄마 정숙의 재회와 갈등과 화해에 대한 내용이 더해진다. 또한 두 쌍의 부부, 규태와 자영(배우 염혜란)의 갈등, 종렬과 제시카(배우 지이수)의 이혼 위기 등이 부수적으로 전개되면서 모든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주조연의 모든 인물이 각자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고, 부처임을 드러내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부처임을 자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부처로 보게 되고, 부처들이 사는 불국토의 세계가 열린다. 드라마 초반에 동백이 용식에게 분실물센터에서는 사람들이 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자신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 '고맙다'는 말은 상대의 진가를 완전히 인정하고 존경하는 맥락으로 쓰인다. 중생이 가진 여래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을 '고맙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동백,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지닌 본래 모습을 발견해주기를 바라는 동백에게 가장 먼저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것은 역시 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회에서 동백이 꿈꾸던 분실물센터 대신 택배 보관소를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수시로 '고맙다'는 말을 듣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옹산의 게장골목이 바로 부처가 부처를 만나는 불국토임을 보여준다.

이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자. 신장이식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정숙과 동백이 행복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정숙의 한 마디가 강렬하다. "해피엔딩이고 나발이고, 그냥 아껴 먹으면 맛대가리만 없지, 당장 배고플 때 홀랑 먹어야지, 그게 와따지. 그러니까 나중에 말고 당장 야금야금 부지런히 행복해야 돼." 그리고 동백은 행복은 좇는 게 아니라면서 발을 딱 붙이고 찬찬히 둘러보면 천지가 꽃밭이라는 말을 한다. 천지가 꽃밭이면 꽃으로 장엄한 화엄(華嚴)의 세상이 아닌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소한 선의가 모여 기적을 이루는 화엄세계를 설법한 훌륭한 법문이고 드라마 속 '옹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 자,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볼 일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민중구제 기반 삼계교 가르침
원광 법사 통해 신라 전해지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⑪ 신행 선사와 원광 법사

무진장원은 삼계교에 있어서 재정을 유지하는 보다 근원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무진장원을 탄압(721년)한지 불과 4년여 만에 삼계교 전체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삼계교 전법의 불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덕종(德宗, 800년)때에는, 측천무후 당시 삭제되었던 삼계목록이 〈정원록〉에 다시 실렸으며, 경종(825년)대에는 화도경원(化度經院)에 금문액(金文額)이의 하사됐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법은, 유형을 달리하면서 전파됐습니다. 삼계교라는 명칭 대신 '지장사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원광 법사로부터 시작되는 삼계교의 전법이 그려지고 있는 〈삼국유사〉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삼계교가 한국불교사에서 한 축으로 이어졌음을 알린 것은 〈삼국유사〉를 통해 삼계교의 실타래를 풀어쓴 민영규 박사(연세대 명예교수)의 공로입니다. 일부 학자 중에도 〈삼국유사〉를 야사(野史)로 치부하여 인정하지 않는데, 〈삼국유사〉야말로 연구할수록 그 가치가 빛나는 훌륭한 사서(史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삼계교와 신라의 원광 법사는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가? 원광 법사는 수나라 통일시기인 589년 진(陳)의 장안에 입성했습니다. 바로 그때 삼계교의 신행 선사가 수나라의 개국공신인 고경(高熲)을 받아들이며 장안의 진적사(이후 화도사)에 들어간 시기와 같습니다.

당시 신행 선사의 모습을 〈속고승전〉에서는 "(신행은) 상주 법장사에서 구족계를 버리고, 친히 노역에 종사하며, 단의(單衣)로 절식하며, 무릇 모든 도속을 비경(悲敬)으로 예(禮)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족계를 버리고 스스로 노역에 종사했다'라는 이야기는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행 선사의 행동은 비전(悲田)과 경전(敬田)으로 근본을 삼았는데, 비전(悲田)이란 소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경전(敬田)이란 불사(佛事)를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승려의 몸으로서 일일일식(一日一食)을 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예불하는 자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승려사회에 노동을 요구한 첫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원광 법사는 기실 신행 선사의 이 같은 행적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를 신라에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에 원광 법사가 고안한 것이 '점찰보'라는 것입니다.

원광 법사가 신라에 처음 들여온 것은 〈점찰선악업보경〉에 근거하는 '점찰보 사상'으로, 이는 '점찰보'와 '점찰행법'으로 나눠집니다. '점찰보'는 흔히 말하는 '계 조직'의 성격을 가진 소규모 모임이며 '점찰행법'은 지장보살을 향하여 정진하는 참회 수행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 중 '점찰행법'을 통해 지장도량으로서 금산사, 법주사, 동화사가 창건됐다는 건 앞선 회차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원광 법사와 삼계교의 관계는 〈속고승전〉 권13 '의해편' 9에서 확인됩니다.

"특진소우(特進蕭瑀)가 남전에 율량사를 지어 머물기를 청하면서, 육시에 사사공급하기를 변함없었다. 제자 원안(圓安)은 원광이 말하는, 즉 '본국의 왕이 병들어 의사의 치료도 듣지 않아 원광이 돌아오기를 청하여 밤의 두 때에 깊은 법을 설하며 수계참회를 하여 왕이 크게 신봉하였다'는 내용을 차례로 적었다."

이는 원광 법사가 '소우'의 영접을 받아 육시에 사사공양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소우(蕭瑀)'는 수나라 탕제황후의 동생입니다. '소우의 딸과 손녀가 삼계교의 비구니가 됐다는 기록을 담은 비문이 있었다'는 금석록(金石錄)에 기록되어있을 정도로 삼계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원광 법사는 신행 선사의 적멸(594년)이후에도 6년간 장안에 머물렀고, 600년 삼계교 제1차 탄압 당시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속고승전〉 제19권 '습선편' 제4 승옹전에는 "승옹이 세상에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도를 닦아 행이 섰으면, 마땅히 (중생)제도를 우선 할 것이다. 홀로 그 몸만 착하게 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널리 이익 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밝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전'에 반복돼 나옵니다.

원광 법사가 소주 호구산에서 천화(遷化)하려는 것을, 이름도 모르는 신사(信士)가 원광에게 세상으로 내려 갈 것을 권유하며, "지금 법사가 거주하는 이곳은 자리의 행은 될 수 있으나, 이타의 공(功)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삼계교의 승옹과 신라의 원광을 통해 대승불교라는 시대의 풍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❻ 수만 개의 조각에 담긴 불심: 원나라 황후와 고려 나전경함



▶한줄 요약
티베트 불교신자 쿠빌라이의 황후 요청으로 만들어진 대장경 보관함은 나전으로 장식된 것이었다.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했던 고려나전은 아쉽게도 20여 점밖에 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유물들은 부처님 말씀이자 깨달음의 결정체인 대장경을 담기에 더없이 적절한 장엄의 세계를 보여 준다.

고려 공예 절정 '나전경함'…元왕후 불심에 보급

위로는 왕실에서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고려 사람들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불교를 숭상했다. 거란과 몽골 등 외적들의 잦은 침입은 고려 사람들이 불교에 절실하게 귀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처의 공덕으로 국난(國難)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 고려 현종(顯宗, 재위 1009-1031) 때에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대장경(大藏經)을 최초로 판각하여 인쇄, 간행했다. 이 대장경판이 고종(高宗, 1213-1259) 때인 1232년에 몽골군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지자, 다시금 경판을 마련하여 대장경을 간행하는 국가적인 대불사가 거행되었다.

재조대장경의 경우 총 부수가 663함 1562부 6778권에 달한다고 한다. 국가가 주도한 대장경의 간행은 결과적으로 판각이나 인쇄는 물론, 경전을 두루마리 형태로 꾸미는 장황과 공예 등 관련 분야의 발전에 큰 자극이 되었다. 아마도 대장경과 관련된 여러 불사(佛事)에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뒤따랐을 것이다. 유례없는 규모로 간행된 불경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경전함이 대량으로 제작되었다. 경전함의 생산은 곧 경패(經牌)의 제작을 가져왔다. 경패는 표면에 불경의 명칭과 번호를 새긴 소형의 패를 말한다. 이를 경전함에 달아 어느 함에 어떤 경전이 들어 있는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고도로 발달한 고려시대 경전 문화와 공예의 수준은 이웃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중국 원나라(元, 1279-1368) 황후가 고려 조정에 경전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말이다.



〈나전국당초문경함(螺鈿菊唐草文經函)〉, 고려 13세기 후반, 25.6×47.3×25.0cm, 개인 소장. 사진 제공=리움미술관

원나라 황후 불심으로 몽골에 확산된 티베트 불교

나전 장식된 경전함 완결된 아름다움 세계 보여줘

원나라 황후와 고려의 나전경함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권27 원종(元宗) 13년 2월 15일 조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보인다. 바로 "갑진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을 설치하고, 또 전함조성도감(鈿函造成都監)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황후가 대장경(大藏經)을 보관할 함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甲辰置戰艦兵糧都監, 又置鈿函造成都監, 以皇后欲盛藏經而求之也)"라는 기사이다.

1272년이면 고려가 30여 년의 대몽항쟁 끝에 결국 원나라와 강화를 맺고 간섭을 받기 시작한 지 13년째 되는 해이다. '도감'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관청을 뜻한다. 요즘 말로 바꾸자면 일종의 '태스크 포스(task force, TF)'라고 해도 좋겠다. 기사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도감인 '전함병량도감'은 원나라의 일본 원정을 위해 전투함을 건조하고 군량미를 조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한편, '전함조성도감'은 나전으로 장식한 함을 만들기 위해 설치된 관서의 이름이다. 기사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듯이, 이 함은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요청한 이는 쿠빌라이의 황후였다.

이 기록 속의 황후는 차부이(Chabi 혹은 Chabui, 察必, 1225-1281) 카툰으로 생각된다. 카툰은 북부 유목민족의 왕비, 황후를 일컫는 칭호이다. 차부이는 몽골의 제5대 대칸이자 원나라를 건국한 세조(世祖, 재위 1271-1294) 쿠빌라이의 두 번째 황후였다. 차부이의 어린 시절과 초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으나, 사서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어질고 밝았다고 한다. 또한, 사랑받는 아내이자 통치에 관해 간언하는 충실한 조언자였다고 한다.

〈원사(元史)〉에 실려 있는 차부이의 짧은 전기에는 그녀의 종교적 견해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실려 있지 않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고려사〉의 기록이나, 단편적이나마 여러 문헌에 전하는 내용들을 합쳐 보면 그녀가 열렬한 불자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차부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불자였던 것은 아니다. 몽골의 부족들은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을 믿었고, 그녀의 출신 부족인 옹기라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차부이는 일찍부터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티베트 승려인 팍빠 로되 갤첸('Phags pa blo gros rgyal mtshan, 八思巴, 1235-1280)으로부터 밀교의 수계 의식인 관정(灌頂)을 받을 정도로 불교를 숭신했다. 관정을 받은 차부이는 크게 신심을 발했으며, 쿠빌라이에게 이를 권했다고 한다. 이처럼 차부이는 쿠빌라이가 불교를 받아들이도록 애썼고, 불교가 몽골의 국가 종교로 확립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개인적 차원의 신앙 외에도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었다. 차부이는 티베트 불교를 통해 원나라가 중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데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그녀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에 티베트 불교는 몽골 왕실뿐만 아니라 귀족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아니거(阿尼哥, 1245-1306), 〈원대후반신상(元代后半身像)〉 중 '원세조후상(元世祖后像)', 원, 1294년, 비단에 채색, 61.5×48.0cm,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사진제공=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



〈경패〉, 고려시대, 순천 송광사 소장, 보물. 사진제공=국가유산청

깨달음과 불심을 담은 나전경함

원나라 황후의 요청에 대응해 만들어진 경전함은 나전으로 장식된 것이었다. 기실 고려 나전의 명성은 이미 훨씬 앞선 송나라 때에 중국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고려사〉에 실린 몇 가지 기사들이 이를 입증한다. 고려 조정에서는 1080년(문종 34)에 송나라에 나전으로 장식한 수레 나전장차(螺鈿裝車)를 진상하기도 했다. 또한 인종(仁宗, 재위 1122-1142)대에 요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문공인(文公仁, ?-1137)은 나전기(螺鈿器)를 선물로 준비해 갔다고 한다. 고려 나전은 이처럼 황제에게 진상하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선물할 만큼 진기한 물건이었다. 1123년에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 1091-1153)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고려의 나전 솜씨는 세밀하여 귀하다(螺鈿之工 細密可貴)"고 찬사를 남길 정도였다.

이처럼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했던 고려나전은 아쉽게도 20여 점밖에 전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전함조성도감에서 제작한 13세기 후반의 나전경함은 6점에 불과하다. 그것도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의 박물관에 흩어져 있어 직접 보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현존하는 유물들은 부처님의 말씀이자 깨달음의 결정체인 대장경을 담기에 더없이 적절한 장엄의 세계를 보여 준다. 이 같은 빼어난 나전 솜씨 뒤에는 전함조성도감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큰 역할을 했다. 말하자면 국책 프로젝트였을 전함조성도감의 설치는 곧 작품의 제작을 뒷받침할 만한 조직의 정비, 재료의 안정적인 수급, 그리고 기술의 확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성과는 현재 알려진 일련의 나전경함이 보여 주는 규격화된 크기와 정교하지만 창의적인 문양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0.8cm도 되지 않게 세밀하게 다듬은 수만 개의 나전 조각은 때로는 서로 모여 국화꽃이 되고, 때로는 모란꽃이 되었다가, 잎사귀가 되기도 한다. 원래라면 그대로 버려질 조개, 전복, 소라 등의 속껍데기가 고려 장인들의 손끝에서 오색의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보석으로 다시 태어났다. 옻칠을 한 표면 위에 작디작은 나전 조각들을 아교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은 지극한 인내심과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지난한 작업이었으리라.

바야흐로 "세밀하고 정교하여 귀하다고 할 만하다"는 찬사도 모자랄 정도의 완결성이다. 나무와 조개껍데기라는 일상적인 재료로 만들어낸 눈을 홀리고, 마음을 사로잡는 완결된 아름다움의 세계. 다만 몽골의 침입을 불력(佛力)으로 이겨내기 위해 벌인 팔만대장경 불사와 그와 관련된 불교 공예품 생산의 기술이 결국엔 몽골의 카툰이 요청한 경함을 만드는 데 동원되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일 것이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염불시스템 시설 상담하세요!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 5백여 사찰 염불시설을 한 베테랑업체!
본사는 최신 디지털시설로 기존 법당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차이를 시설전 반드시 확인!
소리 공학박사 박 공 희 대표 직접 방문 설명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귀 사찰 법당시설의 ½가격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50평 가능 / 방생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사찰 재 전문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장엄한 음성으로 화답!



대행 스님

이 전체 삼라만상 도량이 그냥 참선방이에요

지난 호에 이어서

'내가 태양계도 그렇게 커질 수 있고 별성도 커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악으로 커지면 큰일이고 선으로 커진다면 그것은 좀 낫지, 응?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뚱이 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별성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내 선장 한마음에 의해 그 수십억 마리가 보살로 화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천백억 보살이 화해서 전자로서 원자를 끼고, 원체를 끼고 바깥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용도에 따라서, 누가 이 보살을 청하면 이 보살로 화하고, 저 보살을 청하면 저 보살로 화하고, 지장을 찾는다면 지장으로 화하고…. 그러니 지장이 따로 있고, 관세음이 따로 있고, 신장이 따로 있고, 독성이 따로 있고, 용왕이 따로 있고, 지신이 따로 있고, 조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서 바로 모두가 화해서, 그 별성이 전부 보살로 화해 가지고 들고 나면서 멀다 하지 않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뉴욕이나 L.A.에서나 어디고 전화가 급하게 오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곰살궂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그렇게 급해서 전화하는 사람도 나요, 대답하는 놈도 나야. 만약에 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대답도 안 할 것이요, 또 내가 그쪽에서 그렇게 믿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야 한다는, 멀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지, 응? 인간들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나가지만 우리 마음은 비자 안 가져도 다닐 수 있는 거지. 멀다고 가지 못하고, 물이 깊다고 건너가지 못하고, 저승이라고 갈 수 없는 게 아냐. 한 찰나야.

그래서 맡겨 놔라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공부를 시키느라고 하는 거지, 나를 발견한다면 맡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대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는 거지. 말을 하려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말을 해, 그럼. 그래서 급하다고 전화를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전화를 탁 받는 순간 얘길 하니깐 듣는 거지. 내가 들었으면 그놈이 알고 있지 않아?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으니깐 자동적으로, 나고 드는 거야 자동적으로 알고 있잖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잘 들어요. 의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어느 공장에서 병이 났어. 병이 났으면 나한테 신호가 와. 아프다는 게 신호야. 알았죠? 아프다는 게 신호인데 '아이구, 여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지. 여기가 아프니깐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 거야, 신호가 왔는데도. 신호가 왔으면 바로 공장장한테 거기니 여기니 할 것 없이 다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서 대뇌로 인해서 사지로 신호가 가면은 어디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 공장에서 전체를 조사해 봐라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직원들이 다 나서서 그것을 다 고친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이 몸을 형성시킨 거니깐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이거야. 남이 더 잘 알겠어, 형성시킨 자기가 더 잘 알겠어?

그러니까 고장이 난 곳을 고치는데 신호가 오면 벌써 딴 데로 나가, 다. 형성시킨 주인공한테다가 '주인공밖에는 이거 고칠 수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야 될 텐데 일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갖춰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막 매대길 쳐. 그러니 딴 데로 매대기 치는 동안에 벌써 신호를 보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일하라고 시키질 않으니까, 신호를 했는데도 소식이 안 오니깐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판국이지, 어떻게 해.

군대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기안을 올렸는데 위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 직원이 무슨 일을 해, 응? 사장한테 올렸는데, 공장장이 올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은, 하라 말아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소리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야, 자기 맘대로.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오걸랑 빨리 조치를 취해서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때에 거기에서, 말하자면 두뇌의 총지배자죠. 그게 누진이라고 그래요. 누진에 올리면 모든 게 전체 통신이 돼 가지고선 어디가 어떻고 조사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소상히 알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형성시킨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한테 있으며, 여러분 안에 오신통을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으며, 그 오신통으로 인해서 천차만별로 나가는 질량을 전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중생이라고만 하고 부처님 법은 높은 데 있다고 하면서 '아이구, 부처님, 나를 살려 주시오. 우리 아들을 잘되게 해 주시오. 낫게 해 주시오. 뭐, 이끌어 주시오.' 뭐가 어떻고 어떻고, 속만 상하면 '아이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건 세상을 이름해서 말한 거지,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름해서 세상의 이름으로 지어 놓은 거지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는 이름이 아니야. 그냥 부르기 이전에 지금 살고 있어. 말하고, 보고, 관(觀)하고 살고 있지 않남? 그게 그냥 이름이야. 뭐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도리를 모두 알면 즉 이름 없는 관세음보살이야. 한마음으로서의 자유인이 되니까.

나는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발견을 한 그때서부터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했다 하면은 자(子)가 돼요. 그 자로 인해서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 돼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생각하지 말고 화신이 아들이라 하면은 아버지는 가만히, 무심으로 가만히 있을 때에는 부처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질 쳐다보면 모두가 아버지로 돌아가, 하나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고 움죽거렸다 하면 바로 아들이다 이거야.

내가 그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공부할 당시에 어느 산중에 가니까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나더러 묻기를 '이거는 아버지의 묘지인데 아들한테로 가면 아들로 하나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오면은 아버지로 하나가 되니 그것은 무슨 연고냐.' 하고 묻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다 이겁니다. 무심으로 가만히 있으면 애비요, 애비로 하나가 되는 거야. 자식이고 애비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24시간 일을 했다 하면은 자가 되는 거야. 따로 애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로 한데 합쳐 버려. 그러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일을 과학자처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렇게 따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름일 뿐이고 그것은 유의 법에서의 50%, 즉 우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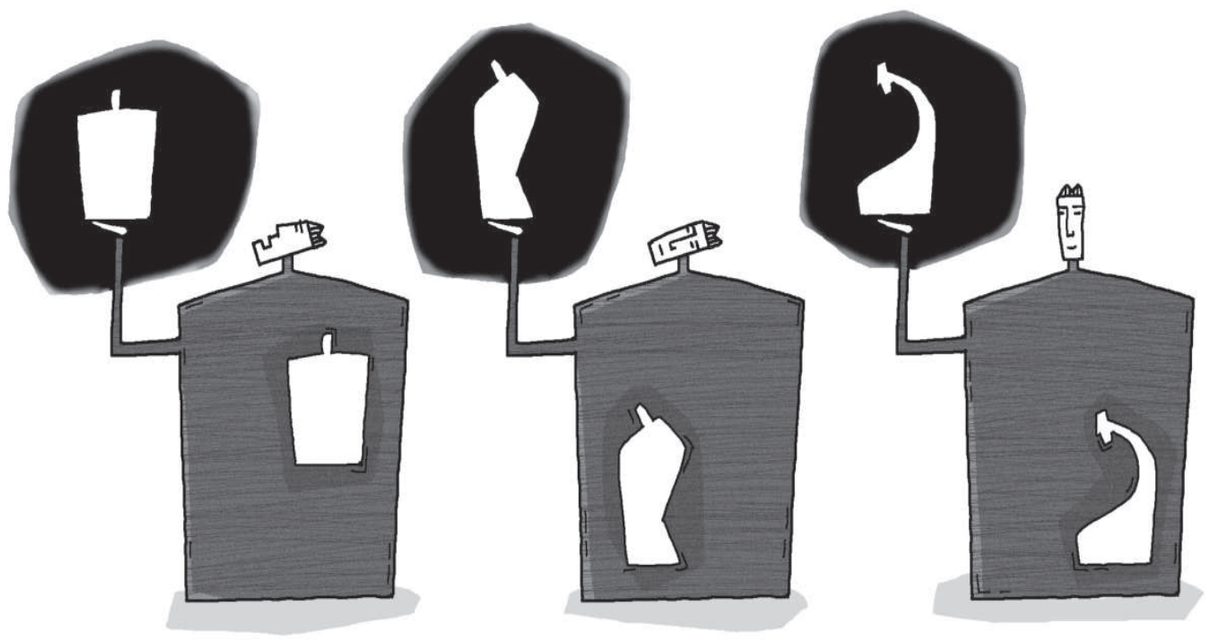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본부터 아셔야 됩니다

☞ 19면에서 계속

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공부죠. 그러나 빛보다 더 빠른 한 찰나라는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로 재고 있겠소? 응? 빛보다 더 빠른데! 미국을 가는 데도 요기서 요 한 발짝 쳐다보는 거나 미국에 가는 거나 저 달에 가는 거나, 은하계에 가는 거나 똑같애. 그런데 어떻게 자로 재겠느냐 이거야. 잴 수가 없죠. 그래서 구지 스님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일생을 가르쳤어,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 손가락이 보통 손가락이 아니거든, 뜻으로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도리를 공부하면서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돼서 그 빈집 속에서 업식으로 만난 인연들이 나고 들면서 세균도 끌어들이고, 병들도 끌어들이고, 영계들도 끌어들이고, 인연 닿는 대로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며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면은 여러분이 살겠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집안일들이나, 병이 드는 일들이나, 식구들에게 모두 참 굉장치도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은 그 고를 어떻게 밀고 나가겠느냐 이거야.

그뿐이 아니에요. 임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네게 주장자가 없다면 주장자를 내가 뺏을 것이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 집이 비었다면은 주장자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온통 야단을 쳐도 모르고, 코를 통하고 눈을 통하고 털구멍을 통해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도 본인은 모르는 거야. 자기 집을 그렇게 드나드는지도 모르면서 단전을 해 가지고 머리가 이상해지고 하는 것들, 그런 건 몸에 관한 건이지, 피를 통하게 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일이지 내 마음공부가 아니야.

왜 아니냐. 그것도 마음공부 아닌 게 없지마는 내가 이 안에서 발견하지 않고는 그거는 그냥 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생각뿐일 거야. 몸이 튼튼해야 공부한다는 것만 알았지, 내가 모든 걸 귀결해서 놓으면은 몸 튼튼해지는 건 물론 모든 부분이 좋아져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몰라. 하나만 알지 둘도 몰라.

그래서 바깥에서 타력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은 병자가 많아. 한철 가서 참선방에 가서 있다 오면 병 집이 돼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한철 나고 해제를 하면은 약탕관 떠날 사이가 없다가 또 결제가 되면 약탕관을 놓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것은 참선방에 다녀도 혼란이야, 혼란.

이 전체 삼라만상 도량이 그냥 참선방이야. 변소에 가도 참선이요, 드러누워도 참선이요. 그러니까 앉아도 참선이요,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고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살면 모든 게 스스로서 따뜻하게 내 집안이 아늑해져.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화목해지고, 우환이 없어지고 어떤 급한 일이 생겨도 주인공에 맡기고 스위치만 누르면 그게 돌아가서 어떡하든지 와서 닿아. 그것이 바로 끊어짐이 없는 참선인 것이죠.

아마 체험을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그렇게 체험함으로써 내가 나의 주인공을 신임을 하게 돼. 신임을 하게 되면 그때서는 '아, 주인공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는구나.' 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서부터는 딱 쥐고 가는 거야. 그건 뭐, 24시간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그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주인공이 다 내 모든 것을 끌고 다니는구나. 그 언덕이 없었더라면 소가 와서 비빌 수가 있겠나.' 아, 모든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니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야. 타력 신앙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공덕이 하나도 없어. 수천억만 원을 갖다가 준대도 그것은 공덕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해서 돈이 없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같이해.

그리고 이 세상의 사생 전체가 다 둘이 아닌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비구 비구니를 따진단 말이야. 이거는 벌레도 둘이 아닌 까닭인데 아니, 여자 남자 따진다면 그건 공부 다했지. 호랑일 잡으려면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또 그 하치 못한 개구리를 알려 해도 개구리 속에 들어가 봐야 알어.

옛날에 원주에서 어떤 사람이 소를 기르는데 소가 병이 나니깐 그 집은 다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젖소를 열다섯 마리 기르는데 열다섯 마리 중에 하나 남곤 다 병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집 망하는 거지, 아주. 세상에 광주리에다가 쌀하고 돈하고 초하고 사 들고는 그 산중에를 왔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직접 만나도 그 사람은 난 줄을 몰라. "내가 그럼 그렇게 여쭤 드리지요." 이렇게 했지. 내 얼굴을 모르니까. 허허. 나는 바깥에 버섯을 따러 나갔었는데 아, 그걸 광주리에다 이고 그냥 쩔쩔매고 오더라고. 그래도 그거 받지 않았어. 그거 받으면 못써. 아무개 스님을 찾으러 간다고 그래서 "그 스님 지금 안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러고저러고 해서 지금 소가 전부 병이 들어서 집안이 다 망하게 됐고 벌써 한 마린 쓰러졌고 죽게 됐습니다. 이거를 살려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하고 엉엉 우는 거라.

그래서 그랬지. "그분은 지금 출타하시고 안 계시지만 내가 꼭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내려가 보세요. 아마 그분은 벌써 아실 거예요. 그분은 천 리 가 있어도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만 해도 아실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분은 알아듣고 벌써 그것을 다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 놓고는 내려보냈겠다.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회장도 그렇게 내가 없어도 "안 계시지만 그분은 벌써 알고 계실 테니 내가 말씀은 해 드리죠." 이렇게만 해도 그게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모두가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통신도 되고 전력, 광력, 자력이 충분히 거기에서 나오고 천체 통신, 타심, 숙명, 천이, 천안, 누진이 다 풍부하게 동시에 돌아간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휴, 우리 소가 다 나아서 이제는 살았습니다." 하고 왔을 때에 그렇게 기쁜 것은 없어.

또 누가 아무리 나를 속이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속인 게 아니야. 이익하게 속이는 거는 속인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만약에 내 식구가 먹질 못해서 부황이 나 가지고 먹을 거를 도둑질했다 합시다. 그럼 그건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질세계에서는 몸을 붙들어 가지만 이 마음세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착한 효자라고 보고, 바로 부모니깐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눈물이 날 지경이죠, 죄로 몰기 이전에.

전에도 이런 말을 종종 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소금을 요만큼 싸 가지고 다녔죠. 그렇게 남한테 뭣을 달라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소금만 싸 가지고 다니고 야채를 먹으면 날콩만 한 움큼 가지면 됐고, 구태여 먹을 거를 싸 들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법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알 양으로, 미리 좀 다 알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으시겠죠. 세상이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따라 나한테 닥치는 대로 자꾸 돌아가는데 무슨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거를 체험을 하면 되지, 체험을 하고 자꾸자꾸 돌아가면 되지 그건 미리 할 수가 없어요.

> **세상이 찰나찰나 지금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따라 나한테 닥치는 대로**
> **자꾸 돌아가는데 무슨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 **그거를 체험을 하면 되지.**

미리 알고 있으면 벌써 그거는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알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기설법으로서 그냥 책을 놓고 내용을 뽑아 가지고 하려면 그게, 여러분 앞에 가고 옴이 없이 그것이 갑니까? 불이 켜집니까? 여러분과 나와 마음이 있고 역대 제불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한자리요, 한 통 속이다 이거야. 그러니 그 한 통 속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이거야, 한 통 속에서도. 그래야 통을 굴리지. 원심력이 있다면 원통력을 발휘해서 통을 빠져나와서 그 통을 굴려라 이거야. 이것이 바로 오신통을 굴리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어느 거든지 다 갖추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탄허 스님이 '없고 없고 또 없다'는 뜻으로 '무무역무(無無亦無)'라고 썼듯이…. 없고 없고 또 없구나! 나는 이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뒷발자국도 없고, 앞의 발자국도 없고, 현재 떼어 놓는 발자국조차도 없다라고 했죠. 그게 그 소리야. 찰나찰나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 행도 없으니까. 이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저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찰나찰나 바뀌어 가는 거를 어떻게 내가 미리 좀 많이 알았으면 하고 그렇게 욕심을 두느냐 이거야.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내가 24시간 살아나가는 대로 24시간조차도 없는 거라. 밤낮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동쪽이 서쪽이 되고, 서쪽이 동쪽이 되고 이렇게 뒤집혀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겠어.

그러니 유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 도리를 공부해 가지고 유식한 거를 거기에 포함해서 쓰세요. 그러면 좋지만, 우리 이 마음의 공부라는 거는 유식하고 학식이 높고 이름이 높고 그렇다고 해도 이 공부하는 데는 그게 아무 이익한 게 없어요. 모든 거 아는 것도 다 거기다가, 아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모르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잘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또 안되는 것도 그놈이 안되는 것. 그러니 안되는 것도 그놈이 해결할 거, 잘되는 거는 그놈에 감사하고, 그놈 그놈, 그놈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이 다른 걸 믿는다고 하나 허공을 믿겠습니까, 내 이름을 믿겠습니까, 역대 보살들의 이름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본부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운전수이니까 잘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저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는 체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보는 대로 여러분이 알면 나도 알게 되고, 여러분이 모르면 나도 모르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찰나 생활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니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잘, 조절해서 체계 있게 잘 생각을 하세요. (음성 공양이 끝난 후) 모두 한 부처이며 각각 자기 부처님 설법을 자기가 듣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3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㉞ 분노의 화살을 멈추게 한 부처님, 분노시리즈 (7)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라

지난해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최소 181명의 여성이 살해되었고, 374명이 살인미수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한국여성의전화'가 2024년 한 해 동안 언론 보도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평균 이틀에 한 명꼴로 발생했으며, 피해여성의 자녀, 부모, 친구 등 주변인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최소 650여 명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의 17.5%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조치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극단적인 폭력을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범죄 통계를 넘어,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될 가능성과 잔혹함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혼 요구, 재결합 거부, 의심 등 관계의 균열이 가해자들에게는 '버려진다'는 불안으로 작용하며,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분노로 변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가해자들은 '나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인가?', '나는 버려지는가?'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그 두려움이 극단적 분노로 전환된다. 이는 단순한 순간적 감정 폭발이 아니라,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과정에서 축적된 감정이 폭발한 것이며, 관계를 소유하려는 집착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심리학의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에 따르면, 어린 시절 형성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개인이 타인과 맺는 관계 방식과 감정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안전감을 느끼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극단적인 감정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순간적 감정 폭발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이 성인이 된 후에도 반복되는 과정이다.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지나치게 신중해지거나 타인에 대한 의심이 깊어진다. 이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경험할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확신하면 강박적으로 증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신을 떠난 사람이나 배신한 상대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한 애정을 쏟고 헌신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을 분노로 표출하기도 한다.

이들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깊은 심리적 상처에서 비롯된다. '나는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버려질 존재인가?'라고 시작된 생각은 곧 두려움이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은 분노로 변한다. 내면에 자리 잡은 버림받음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활성화되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버림받지 않으려는 두려움' 집착 원인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안정 얻어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최근 연구에서 내적작동모델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경험과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이는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분노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먼저, 그들의 특정한 분노 대상을 정리해 보자.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는 깊이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나 연인, 부모, 형제자매, 자녀, 친한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관계일수록 분노가 쉽게 촉발된다. 그들에게 이들은 삶에서 중요한 존재이며, 그들의 인정과 애정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특정 성별이나 연령층에 집중되거나,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만드는 대상에게 더욱 강하게 표출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감정은 질투다. 질투에서 비롯된 의심은 비난으로 변하고, 결국 분노로 치닫는다. 결국 관계는 파탄난다. 질투로 인해 상대방을 미행하고 따져 묻고,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며 협박까지 하기도 한다. 자신의 상황이 이에 해당 된다면, 즉시 멈춰야 한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것이다. 질투와 불신이 떠오를 때 대체할 문장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는 오늘 그 사람을 믿겠다', '그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와 같은 문구를 활용해 불안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 믿었던 사람을 떠올리며 안전감을 되새기는 것도 방법이다. 자신이 사랑받았고 안전했던 기억을 상기하며, 관계의 안정감을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과 말도 변해야 한다. 불신과 의심의 언어를 버리고, 상대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불필요한 질문과 집착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울 뿐이므로, 상대를 시험하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필요한 존재라고 믿는 것이다.

지난 연재에서 똥을 나르는 일을 하던 니이다이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니이다이는 부처님을 피해 급히 도망치려다 넘어져 똥물을 뒤집어썼고, 부처님의 가사에도 똥물을 튀게 했다. 하지만 불가촉천민 가운데 더욱 심한 차별을 받은 그를 부처님은 제자로 삼았다. 깨달음의 길을 갈 부처의 사람으로 믿고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스스로를 불가촉천민으로 여기고 있을 뿐, 부처님께서는 그를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사랑받고 있음을 믿고 '버림과 버림받음'이란 생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신이 이미 온전한 존재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건강 365

㉟ 슬개골 탈구

슬개골 탈구, 정확한 진단·원인 파악 중요

슬개골 탈구란?

슬개골은 무릎 전방에 위치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종자골입니다. 그 역할은 무릎 운동에서 도르래 역할을 하여 무릎 관절 운동을 용이하게 만들고, 적은 힘으로 무릎을 펼 수 있게 도와주는 지렛대의 받침점 역할을 합니다. 슬개골이 정상적인 활주를 하지 않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이탈되는 경우, 이를 슬개골 탈구라고 합니다.

슬개골 탈구의 종류

△**외상성 탈구(Traumatic Dislocation)**: 가장 흔한 원인으로, 스포츠 외상 등으로 평소 잘 사용하던 슬개골이 탈구되는 경우입니다.

△**재발성 탈구(Recurrent Dislocation)**: 두 차례 이상의 탈구가 발생하면 재발성 탈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우 특징적인 'J sign'이 나타나며, 무릎을 펼 때 슬개골이 탈구되고 무릎을 구부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이 확인됩니다.

△**습관성 탈구(Habitual Dislocation)**: 대부분 해부학적인 이상에 의한 탈구로, 무릎을 펼 때가 아닌 구부릴 때 발생하는 탈구입니다. 이 현상을 'Reverse J sign'이라고 부릅니다.

슬개골 탈구의 원인

△**연부조직의 손상**: 외상으로 인해 슬개골에 붙어 있는 슬개대퇴인대(Patellofemoral ligament)가 파열되거나 늘어나면서 재발성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성 병변(Bone Deformity)**: 슬개골의 활주를 가능하게 하는 슬개골과 대퇴골 활차부의 해부학적 모양 이상, 즉 활차 이형성증(trochlear dysplasia)으로 인해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측 대퇴활차부의 저형성 및 외측 활차부의 과형성, 그리고 다른 뼈의 골극 형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의 검사와 치료

슬개골 탈구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개골 탈구 시, 원인이 연부조직의 문제인지 아니면 뼈의 문제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면 다양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의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X-ray)**: 다리의 전체적인 정렬을 체크해야 하며, 무릎의 전면부와 측면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대퇴활차부의 해부학적 이상을 확인합니다.

또한 슬개골이 무릎 관절선에 대해 고위슬개골(Patella Alta) 또는 저위슬개골(Patella Baja)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성 손상의 경우, 무릎을 20도, 30도, 45도, 60도 등 여러 각도에서 슬개골이 정복되거나 탈구되는 양상을 촬영해 봐야 합니다.

△**CT**: 슬개골 탈구는 경골과 대퇴골의 부정정렬(malalignment)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CT 촬영을 통해 고관절의 해부학적 모양을 평가하고, 경골의 외회전각 및 경골결절-대퇴활차구 거리(TT-TG distance)를 측정하여 뼈의 이상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MRI**: 슬개골 탈구 시 연부조직 손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슬개대퇴인대의 파열이나 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슬관절 내부 출혈이나 연골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슬개골 탈구의 치료

△**최초 1회성 탈구**: 외상성 탈구의 경우, CT와 MRI 검사에서 동반 손상이 심하지 않고 추가적인 해부학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적절한 보조기와 고정을 시행한 후, 부종이 빠지면 근력 강화를 포함한 단계별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 손상 등 동반 손상이 있을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의 탈구 및 심한 연부조직 손상**: 다리의 정렬이 정상인데 연부조직 손상이 심한 경우, 슬개대퇴인대(MPFL)의 재건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슬개골과 대퇴골을 잡아주는 슬개대퇴인대는 무릎이 펴지고 초기 굴곡 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T 검사에서 다리의 부정정렬이 확인되면, 특히 TT-TG 거리가 20mm 이상일 경우, 경골 결절의 위치가 부정정렬을 일으킬 수 있어, 경골 결절 절골술을 통해 정렬을 교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습관성 탈구**: 습관성 탈구는 대부분 다리의 정렬이 외반슬(x자 다리)인 경우나 대퇴골 활차부의 이형성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고, CT상에서 TT-TG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외상성 탈구나 재발성 탈구로 오진하여 인대 수술을 시행하면 수술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리의 정렬을 교정하는 수술이 필요하며, 경골 부위 절골술을 통해 슬개골 부착부를 옮겨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외반슬이 있을 경우 대퇴골 절골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외측지지대의 유리술 및 내측 인대 보강술도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슬개골 탈구는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가장 흔합니다. 슬개골 탈구가 오진되거나 부정확하게 치료될 경우, 추후 성장 시 무릎 뼈에 추가적인 손상이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상효
정형외과 전문의



전법 일기

평택 미군 배우자들에게 한국불교 '선명상' 전하다

평택에 위치한 미군 부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수많은 미군과 그 가족들이 머물며, 이국 땅에서 낯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평택은 넓고 평탄한 지형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저마다의 의미가 담긴 특별한 공간이다.

지난해 여름,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서포터로 스님들과 함께 미국 사찰 순례에 동행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UN 묘지를 참배하며,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미군과 UN 참전국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 앞에 섰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깊은 울림을 느꼈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

이에 국제포교사 도반과 함께 '미군 배우자 명상 클럽'을 조직했고, 매달 한 차례 선(禪)명상을 지도하며 이국에서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종교를 강요하지 않되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경험하도록 돕고,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명상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참여자들과 함께 연등(Lotus Lantern) 만들기를 하며 불교의 상징성과 한국 전통 공예를 소개했고, 차(茶) 명상을 통해 한국의 다도(茶道) 문화를 경험하도록 했다. 차를 우려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 한 잔속에서 명상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참가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

명상 클럽이 7개월을 맞이한 지금, 많은 참가자들이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며 질문하는 이들도 생겨났고, 필자는 차근차근 그들의 궁금증에 답하며 작은 씨앗을 심고 있다.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나,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평택의 미군 배우자들이 명상을 통해 더욱 평온한 마음으로 이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 봉사가 한국과 미국 간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깊게 만드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씨앗이 자라 울창한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듯, 필자의 작은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선명상 전문 트레이너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⑭ 경허 선사의 오도송

부처와 중생은 서로 다르지 않다

깨닫고 보니 세상이 내 집일세

홀연히 콧구멍이 없는 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忽聞人語無鼻孔)
문득 깨닫고 보니 온 세상이 내 집일세
(頓覺三千是我家)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六月燕巖山下路)
일을 끝낸 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野人無事太平歌)

경허 성우(鏡虛 惺牛, 1846~1912) 선사는 조선 후기 불교를 중흥시킨 불후의 선지식이다. 당시는 일본과 서구열강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되어 나라가 망해가고, 불교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기진맥진하는 말법(末法) 시대였다.

이때 경허 선사는 혜성처럼 나타나 정혜결사(1899년)를 통해 조선불교를 새롭게 이끌었다.

불보살이 보우하여 1895년 조선 숭유억불정책의 상징인 '승려 도성 출입금지 해제령'이 발표돼 서울 한양에서 포교 전법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문하에서 기라성 같은 사자새끼들이 쏟아져 나와 오늘날 한국 불교의 핵심인 조계선종의 기틀을 세웠다.

1930년 선학원에서 개최된 조선불교수좌대회에서 그의 상족제자인 혜월, 만공, 한암 스님이 공동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경허 행장'을 쓴 한암 종정은 1948년 조선 조계종 제2대 교정(4번 종정에 추대)에 추대되어 현 조계종단의 초석을 세웠다.

경허 스님은 잠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고, 턱 밑에 죽창을 받치는 살신정진(殺身精進)을 했다. "게으른 중은 죽으면 시주자의 은혜를 갚기 위해 소로 태어나는데 코구멍이 없는 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동안 마음에 응어리진 의심이 확 풀리면서 홀연히 깨달음을 얻었다.

1구 '콧구멍이 없는 소(無鼻孔)'는 선가의 언어로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是甚麼) 그 뜻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의심하는 수행이 화두 공부이다.

1880년 6월 35세에 잃어버린 소(불성)를 찾던 경허는 고삐를 뚫는 콧구멍이 없는 깨달음을 얻은 성우(惺牛)가 되었다. 그리고 연암산 천장암에서 이 오도송을 토해내는 개당설법을 했다. 근대 한국 선불교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웅장한 선언이다. 경허 선사는 한국선시사에서 최초로 심우송(尋牛頌) 20수를 오언절구로 읊은 시승(詩僧)이다. 한용운이 '심우장'으로 계승하였다.

경허 선사는 23세에 동학사 강원에서 만화 강백의 교편을 물려받은 대강사로 교학과 선, 양 검을 쥔 최고 선지식이 되었다. 〈경허집〉에는 깨달음의 세계를 읊은 선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한시 259수와 한글 가사 3수가 있다.

그의 한시 칠언절구 '천장암에 붙여서(題天藏庵)'에서 "속세와 청산 어디가 더 좋은가 봄빛 내리는 성터 어디엔들 꽃이 피지 않으랴"고 하였는데, 오도송 2구에서도 "문득 깨닫고 보니 온 세상이 내 집일세"라고 하였다.

그의 선사상은 무애 자유와 중생과 함께 하는 화광동진(和光同塵) 그리고 승가와 세속이 하나인 승속(僧俗) 일여 사상이다. 부처와 중생이 하나로 서로 다르지 않다.

경허 선사는 생사를 초월했고, 세상사의 시비와 분별을 마음에서 놓아 버렸다. 할 일을 다 마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절학(絶學), 일 없는 사람(無事人)이 되었다. 중국 당송시대 역대 조사와 벗하고 상대할 수 있는 격식을 뛰어 넘은 기이한 일화를 남긴 한국 선종사의 전설이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전법·포교는 근대기 불교처럼

흔히 한국의 근대라고 하면 일제강점기의 엄혹했던 조국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맞섰던 시대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개화와 전통의 사이 근대는 어느 시대보다 역동적이었다.

불교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연구논문들을 보면 1920~40년대 불교는 신문물과 계몽운동을 통한 전법·포교에 진심이었다. 지난 2018~2019년 송광사 박물관 소장유물 전수 조사를 통해서는 '팔상극' '목련극' 두 편의 연희대본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1930~1940년대 송광사를 중심으로 불교연극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민순의)

이 시기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 중심의 불교청년운동이다. 계몽·민족운동의 성격을 띤 이들 운동은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전국에서 펼쳐진 불교순회강연단이다.

강연단은 지역 나눠 순회하며 불교 사상 및 교리, 당대 사상 등에 대한 강의를 펼쳤고 매회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1920~30년대 집중됐던 순회강연단의 활동으로 10곳의 지역에서 불교청년회가 결성되기도 했다.(김경집)

이뿐인가. 당시 불교계는 최근 유행하는 스포츠 포교도 시행했다. 1920년 6월 창립된 조선불교청년회는 대구 지역 소학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소년야구단을 결성했고, 이듬해 11월 열린 대구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다.

창립 당시 조선불교청년회에는 체육부장을 별도로 둘 정도로 체육활동을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불교학계에서 주목받는 백석기 조선불교청년회장의 지원과 관심도 큰 역할을 했다.(이성수)

일련의 연구들에서 우리는 전법·포교가 잘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극, 스포츠 등 당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른 가르침을 열과 성을 다해 펼치면, 그 법은 널리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심은 사람을 움직인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청년불자들 결혼 문제에 관심을

현불논단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매년 약 50여건의 신청자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화문의가 1600여건, 이메일 접수는 500여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그 동안 불교계에서는 청년들의 결혼문제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일부사찰에서 칠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례가 있다. 충북 옥천 대성사에서는 지역 교육청 및 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남선녀 인연 맺기 백일기도를 봉행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불교계에서 세간의 결혼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2023년도에 출생한 우리나라 인구는 23만 명이고, 사망한 인구는 35만2000여명으로 그 차이는 약 12만200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출생아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는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혼인건수는 2023년도에 약 19만3000여건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도에 34만3000여건에 비하면 약 14만9000여건, 43.6%가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혼인건수의 감소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국제결혼의 사례는 2023년도에 약 19만700여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외국인 아내는 14만700여명, 외국인 남편은 약 5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청년법회 축소되며 교제도 줄어
가족 종교일치 증가, 대책 필요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내국인간의 결혼이 감소하고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또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10.1년으로 내국인 부부의 16.8년 보다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청춘남녀들이 흉금을 터놓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인들의 소개나 결혼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조건이 중시되면서 부작용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점차 젊은이들의 건전한 교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불교계는 그 동안 청년포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법회도 거의 사라지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이로 인해서 불자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 것이다. 이에 더해 다종교사회에서 가족의 종교 일치도를 강조하는 종교들이 많아지면서 불자 청년들은 더욱더 배우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국제결혼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코 녹녹치 않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지금부터라도 각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청년불자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각 지역의 교구본사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불자들의 결혼문제는 사부대중이 모두 심사숙고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

세간과 출세간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

햇살은 곱고 바람은 살갑다. 덩달아 우리들의 가슴은 울렁거리고. 바야흐로 봄이 왔다는 소리다. 더 보탤 말도 더 뺄 말도 없다. 나에게 봄은 언제나 단문의 감탄사인 '좋다'였다.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군대나 갈 수밖에 없었던 1980년의 이른 봄 단 한 번만을 빼고는. 봄이어서 더없이 좋은 나날들이다.

일주일에 두어 번 광화문에서 타거나 내리는 광역버스를 이용한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사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여간 솔솔하지 않다. 사람들의 표정이나 옷차림에서 그날 날씨나 기분, 세상 돌아가는 낌새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가만히 웃음을 머금거나 얼굴을 조금 찡그려보기도 한다. 밤늦은 시각에는 헤어지기 싫은 젊은 연인 한 쌍이 차창을 사이에 두고 수화와 대화가 뒤섞인 작별의 말들을 쉼 없이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한다. 나에게도 저런 청춘의 시간이 있었을 테지. 아쉽지만 광화문연가 속의 정겨운 풍경은 여기까지다.

작금의 서울 광화문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선고일을 앞두고 거의 날마다 야단법석과 아수라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순신 동상을 경계 삼아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마치 남북 간의 이념대결이라도 벌이는 듯한 살벌한 모습들을 연출한다.

광역버스서 광화문 풍경 보면
나라가 두 쪽 날까봐 두렵다
정녕 봄날은 저 멀리에 있는가

아는 사람 중에 경남 진주에서 올라오는 퇴직 교수 부부는 탄핵 반대파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에서 서울 나들이를 하는 금슬 좋은 중년 부부는 탄핵 찬성파다. 비겁한 나는 양쪽의 입장을 똑같이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응원한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대단하시다고, 당신 같은 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다고, 그럴싸한 추임새도 넣으면서. 하지만 돌아서면 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이러다 나라가 정말 두 쪽이 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고 무섭기 조차하다.

엊그제의 일이다. 2년째 연재물을 기고하고 있는 교계 잡지사 편집실로 지방의 몇몇 독자들이 최근 대통령을 비판한 내 글을 문제 삼아 거친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는 전언을 들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런지 내심 당황스럽다. 다시 읽어봐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지만,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읽히는가 보다. 원고의 내용이라고 해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인 검찰과 특정 고등학교의 인맥을 너무 중시하는 듯한 인사 스타일을 공(公)적 윤리의 측면에서 약간 꼬집은 정도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령의 여진이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아닌가 싶다. 피붙이 가족 간에도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나 보다. 정녕 우리가 바라는 따뜻한 봄날은 저 멀리 있는 것일까. 봄날 저편의 광화문 풍경이 아직도 겨울인 것만 같아 씁쓸한 하루였다.

社 說

태고종 대사회 사업에 거는 기대

태고종이 올가을, 신도 1만명이 참여하는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봉행한다는 소식이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3월 13일 열린 '2025 신년 기자회견'에 올해 계획을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국제교류를 통한 대사회 사업이다. 태고종은 10월 18일 광화문 일원에서 태고영산문화축제를 연계한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국내외 불자 1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계법회에는 해동율맥 전수자인 수진 율사 스님과 대덕 증명 스님들이 법사로 나선다.

중국 불교계와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다. 올 상반기 중 중국불교계와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었던 태고보우 국사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하고 상호 협력 하에 사업 추진을 해 나갈 방침이다.

송현녹지공원과 연계해 한국전통불교문화전승관 4층에 시민명상센터를 마련하는 점도 의미가 깊다. 바쁜 일상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참선을 통해 번뇌를 내려놓게 하는 것도 이 시대의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태고종의 2025년 슬로건은 '함께 하는 세상,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시대'이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대사회 활동을 강화해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태고종의 다양한 대사회 사업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대한다.

가족이 사찰로 와야 불교가 산다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가 불교계 최초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탁 운영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더프라미스는 3월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개관식'을 개최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은 미끄럼틀, 시장놀이, 주방놀이 등 유아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단체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활동의 역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민간시설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나 불교계의 지원 미비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계 참여가 두드러지며 속속 성과를 나타내자 불교계에서도 서울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서울형 키즈카페 위탁운영을 주제로 포럼도 열었다.

서울의 경우 유력한 전통사찰들은 산 속에 있어 키즈카페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키즈카페 유치에 사찰은 이래저래 불리한 점이 많다.

부모와 자녀를 사찰로 이끄는 것이 꼭 키즈카페일 이유는 없다. 이 역시도 복지와 포교의 방편이다.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가족을 어떻게 사찰로, 불교단체로 이끌 것인가이다. 개종률이 감소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종교일치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가족은 전법·포교의 가장 기본 단위다. 가족이 사찰로 와야 불교가 살아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80차
중앙종회 소집 공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80차 중앙종회를 3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 서울 일붕선원에서 개최하오니 중앙종회 의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9년(2025) 3월 19일
일붕선교종 중앙종회의장 도정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 취임식

대한불교삼론종은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천 천룡사에서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3월 1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3월 1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5 신상

어싱 Earthing 슈즈 특별전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어싱 '겨울용'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산양 가죽신발로 겨울철 맨발 걷기를"

어싱 샤모아 슈즈

비바미에서 맨발 걷기 신발에 이어 접지신발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